

##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건축문화의 시작이다

글. 백민석 · 본지 편집국장

건축을 전공한 분들은 누구나 강의나 문헌을 통해서 '건축(建築, architecture)'의 어원에 대해서 접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똥맛게 갑자기 건축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건축'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건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일반인과의 대화와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이라는 용어가 서양을 기원으로 한 'architecture'의 의미와 building(건축물), construction(시공, 건설) 등을 지칭하는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식 문건인 건축 관계법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rchitecture의 어원은 'architect'에서 출발합니다. 고대 그리스 어휘인 'archi'(우두머리)와 'tekton'(무엇인가를 만드는 제작공)의 합성어인 'architekton'(제작공의 관리자)과 라틴 어휘인 'architectus'(커다란 작업의 계획자, 건물을 짓는 자에서 세상의 창조자까지 만드는 작업의 계획 감독의 주체)에서 유래되었고 기원전 44년에 쓰인 키케로의 편지에 비로소 'architectura'라는 용어로 architecture가 표현됩니다. 이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建築十書)를 재발견한 시대인 르네상스의 영향력에 힘입어 'architecture'라는 단어가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建築)'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메이지시대에 'architecture'의 번역어로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아쉽지만 올바른 번역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도 올바르게 표현된 용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1842년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된 이후 널리 퍼져 사용되었지만 1990년 중반부터는 미국 국회 도서관 도서분류법에 의해 이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이에게 의미의 혼란을 초래하는 정반대의 단어가 잘못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축공학과 유사한 용어로 건물공학(building engineering)을 들 수 있는데 이 용어 외에도 구조, 시공, 재료, 설비, 환경, 도시계획 등 대부분의 전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architecture)'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건물(building)'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는 건축이 일반적으로 물리적 대상물보다는 건물에 대한 예술과 과학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토목(土木)은 상하수도, 도로,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말하고 건설(建設)은 사전적으로는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 등의 공사, 시공을 의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건설공사(建設工事)'의 의미는 '토목공사(土木工事)'를 뜻합니다. 정부자료에서도 토목이 아닌 건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건설과 건축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토목을 뜻하는 건설이 건축을 압도하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문화가 피어나기 어렵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국내의 현실입니다.

건축 관련 용어들의 올바른 정립과 사용이 우리 사회 내 건축문화 자리매김의 시작입니다.

※ 'architecture'의 어원과 관련된 내용은 2009년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발표된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의 Architecture/Architect의 의미에 대한 연구'(서현 저)에서 인용했으며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과 관련된 내용은 1999년 도서출판 발언에서 발간한 '건축교육의 미래-국제화와 전문화를 위한 제언'(김병렬 외 7인 저)에서 인용했습니다.

# 재난현장이 된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동

It became a disaster site : Take-out-drawing in Hannam-dong

글. 최소연\_ Choi, So-yeon

현대미술가, 기획자.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

드로잉 공간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저마다 다르게 읽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면을 가진 다면체이다. 많은 예술가, 건축사,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이 장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개인전, 그룹전, 프로젝트 전시를 통해 발표되고 방문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선이 중첩된다. 전시기간 동안 하나의 드로잉 주제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drawing 넘버링을 갖고 전시가 종료되면 <드로잉신문>과 기억 속에 아카이브 되는 수많은 주름을 가진 다면체이다. 이 다면체는 새로운 예술언어인 드로잉을 생산함으로써 세상을 변주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름이 테이크아웃드로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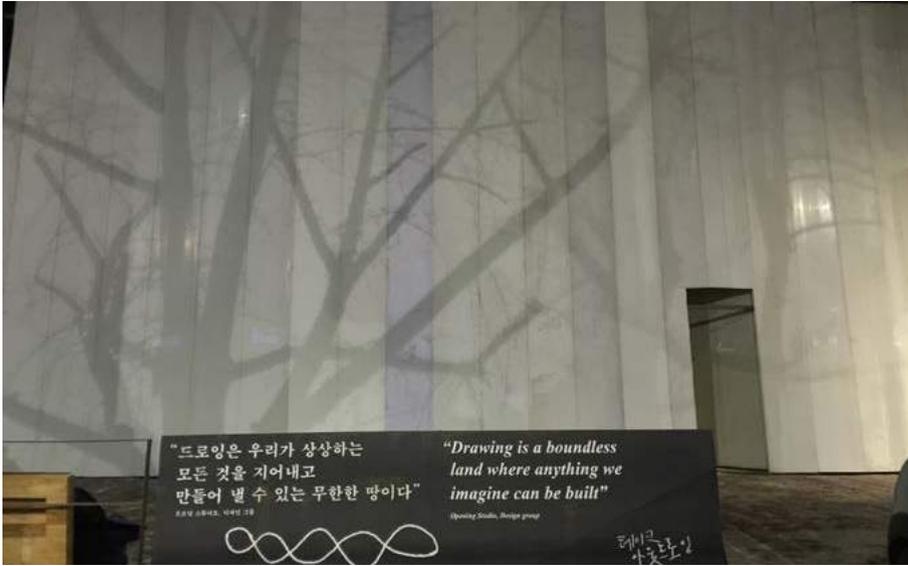
드로잉은 작은 공간/가게를 한 동네에 위치시킴으로서 도시에 작은 거점을 만들고자 시작된 자생적 문화공간이다. 한남동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내포한 이태원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흥미로운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드로잉’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인지 카페형태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 때문인지 많은 방문자들은 드로잉을 어렵지 않게 소비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동은 2015년 건물주의 강제집행이라는 비민주적사태를 겪으면서 재난의 현장이 되었다. 동네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도시의 지형도가 바뀌면서 치솟는 임대료는 장기계약을 하고 들어 온 드로잉 같은 가게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 야만의 정치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려웠다. 그간 드로잉이 추구해 온 가치와 자본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드로잉이 한남동을 터전으로 뿌리내리고자 매일 매일 헌신하며 일구어 온 문화적 토양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 이제 겨우 비옥한 토양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부터 무언가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시기였다. 오래 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의 하나로 오래된 단골가게들이 뿌리내리고자 했을 때 겪었을 ‘내몰림’을 드로잉은 성



책집외부 플래그\_ 수차례 강제집행 후 다시 재건한 테이크아웃드로잉, 2015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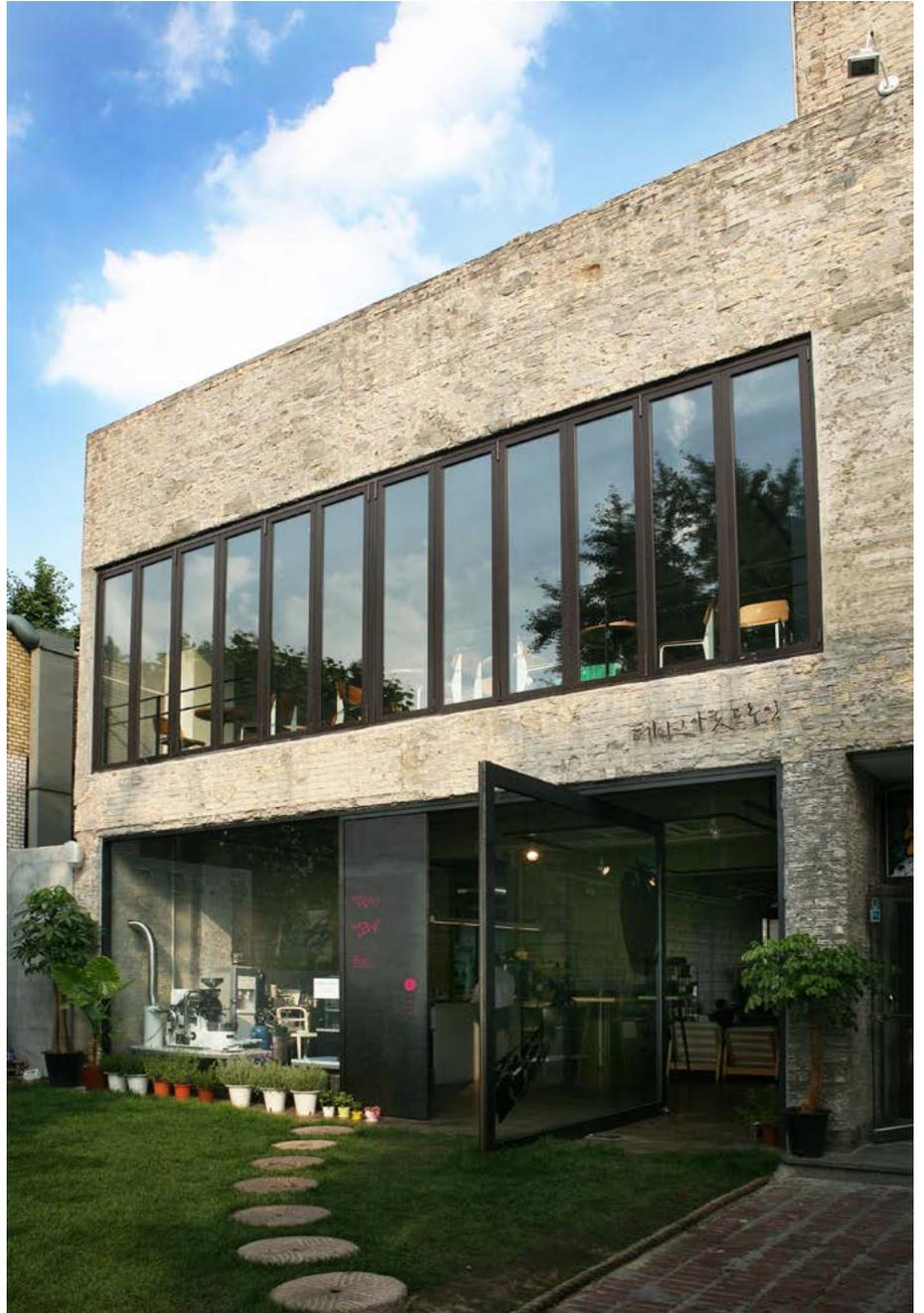
북동 동숭동에 이어 세 차례 겪으면서 더 이상 내몰릴 수 없었다. 이 장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드로잉에게 위기이다. 작고 오래된 가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드로잉은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리며 오늘도 한남동 현장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거리로 내몰리는 우리와 똑같은 이웃들의 현장에 참여한다. 거리에 선다. 모든 재난은 연결되어있다. 장소를 잃고 터전을 잃고 뿌리를 거세당하고 기체 상태로만 예술이 가능한 걸까? 내몰린 예술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게 될까? 사태에 공감하는 친구들을 통해 다시 겸손하게 세상을 배우고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좌담회 형태의 [한남포럼]을 열면서 건물주와의 분쟁 상황을 사회적 의제 및 예술로 확장시킨다. 드로잉이 그러하듯 스



펜스친 사진.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동 강제집행 당시, 2015 봄

스로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드로잉 혼자 지켜낼 수 없을 크기의 재난임은 분명하다. 재난의 공공성을 선언한다.

자발적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드로잉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일방적 ‘내몰림’과 폭력적 사태로 그 어떤 예술적 가치를 보존할 수 없었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간 공간의 문화공공성을 가지고 많은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폭력에 노출된 드로잉은 세상에 문제를 드러내는 것 외에 이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 공간을 찾는 방문자들도 대폭 달라졌다. 강심장을 가진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찾아왔다. 재난현장이 된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동은 새로운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자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할 뿐, 이 재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태 속에 있다.



테이크아웃드로잉-한남동-외부이미지

# 전성기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

Living with ‘good influence’ in golden days

글. 조원용\_ Cho, Won-yong · 건축사 / 다이아몬드 건축사사무소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당시 느꼈거나 받았던 특별한 영향 때문이라. 이런 일은 불현 듯 스스로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전달된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끼칠 수도 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남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나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 부른다.

새벽잠을 설치며 박찬호의 경기를 봤고, 그의 승패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이 달라졌던 때가 있었다. 박세리의 물 속 맨발 샷을 기억하며,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잊을 수 없다. 더 오랜 세월을 거슬러 가면 홍수환의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도 있었고, 이미자의 동백꽃 아가씨도 떠오른다. 이 기억들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동 시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사들 덕분이다.

자신의 전성기에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올까? 10대 때도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까? 김연아와 같은 천재나 아이돌 가수가 그럴 수 있다. 20대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는 대부분의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이며, 30대 때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가 전성기를 맞이한다. 인생의 중년이 되는 40대 때가 되어서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격사의 활동이 왕성해지며 전성기도 시작된다. 그런데 유독 건축사는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성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훈련받아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 시기가 되어서야 친구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기에 소위 인맥에 의한 수주라인이 그때 형성되는 것이다.



건축을 전공하던 학부시절부터 세뇌 당하듯 들었던 말이 “건축사의 전성기는 50대부터다.”라는 것이었다. 그럴 듯했다. 남들 은퇴하는 시기에 건축사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스스로 그만두기 전에는 은퇴도 없으니 말이다. 그런 이유로 보통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렇게 20대 때부터 다음 10년을 준비하며 50대가 되기를 기다려왔다. 30대 때 건축사로 활동하기 위해 20대 때는 건축설계라는 방향을 설정했고, 40대 때 실력 있는 건축사로 인정받기 위해 30대 때는 야근과 철야를 불사하며 치열하게 노력했다. 한편 50대 때의 전성기를 기대하며 40대 때 인맥과 관계 형성에 노력하던 중 깨달은 바가 있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좋은 건축주 만나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모든 건축사의 소원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런 건축주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것이고 로또와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그런 건축주가 있다 할지라도 언급감심 내 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좋은 건축주 만나기’를 소원하는 대신 ‘좋은 건축주 만들기’를 소원하게 되었다. ‘좋은 건축주 만들기’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올해로 만 6년째 <조아저씨의 건축창의체험>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어린이를 가르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



움도 많지만, 나를 준비하며 노력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초등학교 때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목수’라고 적었다가 아버지께서 “우리 원용이가 ‘건축사’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건축사가 소원이 되었다. 중학교 때는 맹자의 군자삼락을 배우며 나도 영재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며 어릴 때 품었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고, 첫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때가 1997년 IMF 때였으니 기쁨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왔다.

중학교 때 품었던 가르치는 소원은 건축사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다. 건축사 사무소 개업을 했지만, 개점휴업과 다를 바 없었기에 1998년부터 모 건축사수험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첫 시험에서 합격한 새파랗게 젊은 강사와 한참 선배님들이신 노련한 수험생의 미묘한 관계였지만,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 4년 동안 강사로서의 성과도 비교적 잘 만들었다. 이후 대학의 겸임교수로 자리를 옮겨 7년 동안 대학생들을 지도했었고, 2010년 이후 이제는 에너지 넘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어릴 때 꿈꾸었던 ‘건축사와 ‘가르치는 사람’ 이 두 가지 소원을 모두 이룬 셈이다.

건축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건축사의 전성기는 50대 중반이 되겠지만, 건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전성기는 때가 따로 없다. 어쩌면 지금이 내게는 전성기이리라. 그래서 나의 전성기 때 어린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 한다. 그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양 높은 건축주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건축주가 될 시기인 30년, 4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건축문화 선진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외롭게 감나무를 심듯이 홀로 하고 있지만, ‘좋은 건축주 만들기’를 함께하는 이가 많아질수록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따먹을 감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좋은 건축주가 많아지면 좋은 건축은 저절로 시작되며, 그 건축 안에서 우리 대중의 행복한 삶은 보장되지 않겠는가?

이제 새해가 되면 그렇게 기다렸던 50이 된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전성기에 설계 수주를 위해 뛰기보다는 더 많은 감나무를 심고, 더 많은 꿈나무를 가르치리라 다짐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원용 건축사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좋은 건축주 만들기’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 계속 살아 있지 않을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두가 알듯이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영생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전성기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꿈꾸고 실천해 볼 만하다.

#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The Ceremony fo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50th Anniversary of Founding

대한건축사협회가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반세기를 설계한다. 지난 10월 23일 건축사 회관(서초동 소재)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조충기 회장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오늘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건축사협회라는 깃발아래 묵묵히 전진하여 우리의 후배에게 건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전했 노라 후대가 평가할 수 있게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 온 건축사와 협회의 업적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던 이날 기념식에는 많은 대내외 인사 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문열 작가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한만희 前 국토부 차관(서울시립대 국제 도시과학대학원장)과 협회 창립년도부터 현재까지 50년간 건축사로서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19명의 공로회원, 역대 고문, 임원 및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동시행사로 경력부족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건축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신진건축사대상 시상식과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대상에서는 홍영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가 수상하였다. 또한 협회창립 (1965)과 함께 입회하여 현재까지 50여 년간 정회원으로 협회 발전과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에 산증인인 김승환 건축사의 18명의 건축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등 신규 건축사가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밖에도 “협회 50년 역사 재조명과 미래비전” 영상과 부대행사로 치러진 UCC공모전의 참가작이 상영됐으며, 건축사 현장 낭독과 비전 선포 및 성악가와 건축사회원의 건축사 찬가 제창, 국악단 소리개의 축하공연, 시루떡 커팅식 등이 행사를 다채롭게 했다.



1



2



3



4



5

1. 기념사를 하고 있는 조충기 회장
2. 축사를 하고 있는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3.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들과 조충기 회장
4. UCC 공모전 수상자들과 조충기 회장
5. 조충기 회장(뒷줄 오른쪽), 류춘수 50주년 기념위원장 (뒷줄 왼쪽)과 창립 공로회원들

## 기념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감격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적으로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기에 더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아울러,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 자리에 서서 무한한 감회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 한 축에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었습니다.

창립당시 우리나라는 건축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땅에 건강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물을 주고 꽃을 피워 지금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건축문화유산과 도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적 뒤에는 이 땅의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인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협회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건축의 정도를 걸으며, 큰 발전을 해왔습니다. 1965년대 회원 128명에서 이제 회원 9,622명에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와 124개 지역건축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 건축연구원, 건축사공제조합을 포함한 탄탄하고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비약적인 발전은 그간 고문님, 임원님, 선배 건축사들과 회원 그리고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젊은 협회입니다. 곳곳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가운데, 우리는 단지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건축!

건축의 이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으로!

건축사 사명의 묵묵한 실천으로 건축사의 자존심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거울의 의미를 넘어, 후대에 세계 속에 빛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건축사는 건축을 통한 삶의 질을 증진시켜 나가며 국민의 행복,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거울삼아 앞으로의 희망찬 50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반세기 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해주신 국민과 건축사, 건축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조충기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건축사회원 여러분과 내빈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있기까지 협회와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 회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노력하고 성장한 만큼 마땅히 축하받으며, 새로운 비상과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매우 기쁘고,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1965년, 앞에 모신 공로회원님들을 포함한 128명의 건축사 회원으로 시작한 우리 협회는 당시 건축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5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세계 그 어느 곳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건축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배 건축사들의 부단한 노력은 여기에 모인 동료와 후배들이 그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건축문화 강국을 꽃피우게 하는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총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께서 다가오는 새로운 50년, 대한민국 건축과 대한건축사협회가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 역시 50주년기념위원장으로 협회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또 이 뜻 깊은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50주년기념위원회 위원장 류 춘 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기념하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은 지친 하루의 일상을 위로하고 내일을 위한 생활의 힘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름답고 창조적인 공간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의 힘을 창출하는 건축은 국민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50년 간 국민의 삶을 담은 공간을 디자인하고 가꾸어 오신 건축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아름답고 안락한 공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무성

## 축사

안녕하세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65년 협회 창립 이후 오늘 창립 50주년이 되기까지 건축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 준비를 위해 애쓰신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사 여러분,  
건축문화는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입니다. 훌륭한 건축물 하나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의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문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 유명한 건축물은 그 나라를 알리고 랜드마크가 되어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축물은 우리나라의 업체(삼성물산, 쌍용건설)가 건설해 세계에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이어가려면 건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예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능적 가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건축물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건축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단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해 생활과 경제의 기반이 무너진 시기,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 건축사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가능했습니다.

압축적인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일구어 낸 건축사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야말로 지난 반세기 한반도 역사상 가장 진취적이고 웅대한 서사시를 써내려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들의 구심점이 되어 우리 건축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대한건축사협회의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책적, 산업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변혁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빠르게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녹아있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에너지도 덜 소비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새로운 건축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으며, 건축사 여러분과 대한건축사협회의 협조로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책이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건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이 올라가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유 일 호**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50주년을 축하드리며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의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축물은 한 나라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적인 유산으로 후세에 그대로 남겨진다는 점에서 훌륭한 건축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그간의 노력은 어느 건축관련 단체보다 열정적이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협회와 학회는 인증원과 등록원 설립, UIA대회 서울유치 등을 통해 미래건축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 왔으며 훌륭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는 대한건축학회는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와의 돈독한 유대관계 속에 우리나라 건축문화창달을 위해 같이 힘쓰며, 소중한 파트너로써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 광 우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1965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과 기술개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건축사는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건축물과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기획, 설계, 감리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국가 경제의 성장에 꾸준히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요한 성과와 역할을 수행해왔던 건축계에서도 최근 건설 산업의 침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설계업계도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젊은 건축사들을 적극 양성하고,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건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축사**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이바지해 오신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최고의 우수 건축물 준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9천 4백여 건축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 건축문화 발전과 기술향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주택협회 회장 **박창민**

## 축사

먼저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산업의 토대가 되는 건축문화발전을 이끄는 단체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창립 50주년을 맞는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창립 이래 지금까지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척박한 국내 건축산업 환경속에서도 반세기 동안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건축관련 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준 높은 활동을 전개한 결과, 건축산업 발전과 선진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주택건설산업은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갈수록 다양화·고급화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주택구매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업체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특히, 주택의 질적 수준은 이제 주택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택 디자인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주택산업 환경에서는 대한건축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차대합니다.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건축문화를 발전·계승하고 미래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등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때 우리의 주택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대한건축사협회가 1965년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21세기 건축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편, 국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을 제공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문경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권익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다가올 50년을 위해 캐치프레이즈를 ‘건축사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손색 없는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함께 모든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축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건축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50년도 대한민국 건축의 선봉장으로써 모든 국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신다면 과거 성장 위주의 건설산업에서 동반자로서의 건설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모든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든든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정순귀

우리 삶의 공간을 다채롭게 디자인해 온 건축사들의 요람인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축설계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소통이자, 인간의 창조성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예술이자, 문화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품격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번득이는 영감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축문화와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훌륭히 해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협회와 20년을 동고동락한 건설산업의 동반자인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조충기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단과 임직원, 나아가 건축사분들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노진명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가지고 선진 건설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오신 건축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사 분들의 열정과 협력으로 건축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한건축사협회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계획단계부터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전 기간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 및 건축분야가 우리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모든 건설인 가족들이 그 중심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50년 또한 대한건축사 협회가 등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정중**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끊임없이 경주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세월 건축사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과 업계의 당면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사 단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축업계 뿐 만 아니라 건설기초자재인 골재업계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인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간다면 참다운 건설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건축사협회 창립50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크게 번영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골재협회 회장 박도문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건축 분야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건축·도시환경 조성,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 향상뿐 아니라 건축사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신 대한건축사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개발 수요가 줄어들면서 우리 분야는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건축문화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여 만물의 원리를 깨닫는 나이라고 해서 나이 오십을 지천명(知天命)이라고도 합니다. 시대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며 건축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지금,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50년 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건축 분야의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김대익



##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he 7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식이 10월 28일 건축사회관(서초동 소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장인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조직위원장인 류춘수 건축사(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회장) 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경립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정희 과장, 대한건축학회 김광우 회장 등 건축계 정부 학계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이장호 감독 등 영화계 인사와 건축학과 학생, 영화·디자인관련 학과 학생 등 200여명의 다양한 연령층과 분야의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페스티벌아키텍트(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최윤영씨와 건축커뮤니케이터 조원용 건축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석자들의 교류의 장이 된 리셉션을 시작으로 류춘수 조직위원장이 개막선언을 하자 본격적인 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내빈들의 축하 인사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개막식은 윌리제이의 재즈공연이 흥을 돋웠다.

개막식에는 이외에도 건축영화제가 7회를 맞이하며 중견영화제로서 발전하는데 이바지한 자를 위해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집행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김규린 건축사와 조직위원인 민옥조 (주)센트럴투자파트너스 상무이사에게 공로패를, 영화제를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 김영우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어혜진 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램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영화제는 “세대공감(世代共感)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까지 6일간 14개국 19개 작품이 상영됐다. 개막식 이후에는 이화여대 ECC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가 상영됐으며 부대행사로 건축철학과 작품을 소개하며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는 HAF(Host Architects Forum)과 건축 및 문화계 전문인사들이 영화에 대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GV(관객과의 대화)가 23명의 전문가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1. 개회사 중인 조충기 회장
2.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최윤영
3. 행사장 입구
4. 개막작 상영
5. 개막식 리셉션



# 2015 한국건축산업대전

10th Anniversary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건축전문전시회 '2015 한국건축산업대전(이하 KAFF2015)'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나흘간 25,000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우수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IT 등 93개 업체 240부스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엔 기존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신에츠실리콘 등 41개 업체가 새롭게 참가하여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아울러 최근 건축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과 제로에너지,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Green&Safety'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시뿐만 아니라 동시 행사로 녹색건축한마당이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개막식에는 주최기관장인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김대익 AURI 소장,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과 미디어 파트너인 매경미디어그룹에 조현재 MBN 대표 등 정부 및 학계, 건축계, 언론사 인사들이 참가했다.

이외에도 전시기간 동안 건축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관람객을 위하여 신진건축사들이 건축상담을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35명의 신진건축사들이 참가하여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100여건의 건축상담도 진행되었다. 전시에 참가한 업체들의 반응도 좋았다. 올해 처음으로 KAFF에 참여했다는 조적 및 석축관련 자재업체인 (주)민예 관계자는 "연계된 업체간의 상호 원원의 전략적 협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며 "내년도 전시회에도 지금보다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참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



2



3



4

1. 개막식 커팅식
2. 녹색건축한마당 전경
3. 대한건축사협회 청년위원회 주관, 집, 365 신진건축사가 말하는 삶에 맞는 집
4. 전시장을 둘러보는 내외빈들
5. 한국건축산업대전 대상 수상자들과 조충기 회장



5

#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5

## 준공건축물부문

올해로 24회를 맞은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준공건축물부문 영예의 대통령상은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전북현대 축구단 클럽하우스」, 「부산 S주택」, 「서울강남지구 A4BL 공동주택」가 선정됐다. 올해 작품은 과거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현재의 요구들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 건축 환경을 만드는데 얼마나 창의적 능력이 발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했다.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인간의 외로움을 공공의 장소에 표현한 「혼자라는 건」(한국해양대학교 이형민, 명정미)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제해성 前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이 수상했다.

한편,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110점, 계획건축물부문 302점 등 총 412점이 응모됐으며, 시상식은 지난 11월 5일(목)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 행사일정

- ▶ 공모 : 2015. 3. 2 ~ 6. 5
- ▶ 참가신청(인터넷신청) : 6. 5까지  
- kaa.kira.or.kr
- ▶ 접수 : 6. 8 ~ 6. 9
- ▶ 심사
  - 작품 포트폴리오 심사 : 6. 19
  - 현장심사(지방) : 7. 6 ~ 7. 8
  - 현장심사(수도권) : 7. 13 ~ 7. 15
  - 최종심사 : 7. 15

### 심사위원

변 용 (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_심사위원장  
 심재호 제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주)  
 강승우 (주)마이 건축사사무소  
 김종오 연희 건축사사무소  
 김인호 조선대학교  
 임형남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백민석 (주)건축사사무소 더불어  
 김현진 SPLK 건축사사무소  
 이근창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 대상

<사회공공부문>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민간부문> 전북현대축구단 클럽하우스

<공동주거부문> 서울강남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일반주거부문> 부산 S주택

※ 작품명 부산 S주택은 시공자,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 본상

<사회공공부문>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

<민간부문> 다음 스페이스닷키즈

<공동주거부문> 대신 센트럴자이 아파트

<일반주거> 동탄 캥거루 패시브하우스

※ 작품명 동탄 캥거루 패시브하우스는 시공자,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 우수상

한전KPS주식회사 본사 신사옥

정부세종청사 2-2구역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치과병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신사옥

동화고등학교 송학관

함안 가르멜의 모후 수녀원

춘천 네이버 지식정보캠퍼스

화인링크

HK 사창리 공장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 연수원

가까운교회

세종 힐스테이트

캥거루 하우스

틈틈집

Y-하우스

※ 작품명 세종 힐스테이트는 시공자, 캥거루하우스·틈틈집·Y-하우스는 건축주만 시상



1. 전시장 개막 커팅식
2. 심사경과 보고 중인 변용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
3. 준공건축물 부문 대상·분상 수상자들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좌측 다섯 번째)
4.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와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 (좌측 여섯 번째)
5. 전시 관람 중인 내외빈들

## 준공건축물부문 심사 총평

우리나라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건축상 제도가 있다. 당 해 년도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자천한 작품들을 대한건축사협회의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 위원회에서 선임한 심사위원들이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이다.

온갖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보여 지진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내용물을 가치적인 것들로 평가한다는 것이 일선 업무에만 종사해 평가만 받아온 본인으로서(결과에 항상 이견이 있었다) 익숙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지어지는 이 때 우리나라 건축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 심사위원직을 수락했다.

이젠 한국의 모든 산업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믿는 것 같다. 건축분야도 세계적 수준이 되었다고 믿고들 있는 것 같다. 경제적 후진성으로 창의적 건축 활동이 불가능한 빈곤의 시대의 건축담론은 대개 새 건축 재료와 그 공법, 조형의 창의성(Gestaltung)과 전통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건축이론과 테크놀로지, 건축용도의 다양화와 대형화로, 설계영역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간 기업의 지방 분산화와 새 행정수도 건설로 이름 있는 집들이 많이 완공 되었다. 대량으로 공동주택이 생산되며 주거 패턴의 변화와 사치성 상업건물들, 종교시설, 업그레이드된 공장시설 등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조건, 같은 thema라면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겠으나, 평가 기준이 같을 수 없는 다양한 기능과 용도와 대형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은 잣대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운 일이나, 절대적 평가보다는 상대적 평가로 수상작을 결정 할 수밖에 없었다.

위임된 심사위원들의 각자의 평가 기준은 건축에 내재되어야 할 보편적 건축 가치관들이었다. 이 행사의 목적인 우리 건축 고유문화 창달에 대한 노력과 인간 중시의 환경 구현과 후진 발굴과 창작의욕 고취가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많은 포트폴리오를 짧은 시간에 분별하는 변별력이 있는 건축지식과 많은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

현장을 답사하면서 장소, 시간을 정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무언의 합일점들이 서로 인지되어 상대적 평가를 내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 미의 완전성과 시공의 완성도, 건축주의 욕구였는지 용도와 기능을 잘 조정 해결했는지 새로 조성된 환경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대화들이 있었다.

결국 각 작품 안에는 과거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현재의 요구들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 건축 환경을 만드는데 얼마나 창의적 능력이 발휘 되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이 평가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눈여겨 본 작품은 자곡동 공동주택이었다. 어려운 대지조건과 많은 주거를 수용해야 할 주제를 해결한 새로운 공동주택의 모범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일률적이고 고답적인 공동주택 설계 요구에도 설계자의 조정능력과 건축적 재능이 보였으며, 건물과 땅이 만나는 세세한 부분을 건어내고, 붙이고 뚫어 변화 있는 주거 환경을 꾸민 건축사의 열심과 능력을 볼 수 있었다. 시공의 완성도는 부족했으나 이 작품의 경가는 당연히 건축설계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작품은 서울대 도서관 증축이다. 한정된 부지조건과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여건에서 시종일관 건축 설계자의 의지로 조정해가면서 장대한 도서관을 해결 하였다는데 관심이 높았다. 기존 건물들을 그냥 두면서 적합한 용도의 공간을 연출했다는 창의적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일반적인 아닌 구조와 기존 건물들을 거의 훼손치 않고 새로운 장소들을 만들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주변 건물과 부조화, 튀는 외장재의 선택은 캠퍼스의 상징성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축을 하게 된 동기와 공공성에는 다른 여유 있는 조건의 작품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있었다.

설계자의 의무는 인간 환경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런 일에 자부심 갖고 전문인으로서 지적, 수행능력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직업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며, 공공에 대한 책임감과 최고의 예술성과 과학적 합리성으로 창조적 문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비교할 수 없이 넉넉한 조건으로 지어진 기간기업의 청사들은 한국 건축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기회였다. 외형적 건축 성취는 있어 보이나 건축의 본질적 내용들을

수용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들이 많았다.

누굴 위해 집을 짓는가? 그 안에 무엇을 내포시켜야 하는가가 건축의 중요 내용일 것이다. 집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구상하는 동인(動因)과 지향성이 뚜렷한지, 이 뜻을 구현할 건축적 지식과 창의적 재능이 있는 자가 참여 하였는지, 또 어떻게 완성도 있는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평가되어진다.

건축물의 존재(Being)에는 그 존재에 내포된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인 모든 것이 실체며 현 실태이다. 용도와 기능을 해결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 논리가 있어야 하며 실증되거나 경험적이 아닌 것들이라도 내재된 정신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내 그 내용이 사용자에게 전이되어 친숙한 느낌이나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 창조성으로 그 건물을 나타내야 된다고 본다. 개체로서 완전함(wholeness)과 온전성(integrity)으로 주위와 좋은 연대를 이루어 전체성(conviviality)을 드러내는 것으로 건축문화 수준이 형성되는 것이다.

추천되지 않아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많은 준공된 좋은 건축이 있는 줄 안다. 제출된 작품만으로 상대적 순위를 매기기는 한정된 규정에서 벗어나 타천된 작품도 수용해 폭 넓은 수상제도가 되길 바란다. 또한 많은 새로운 건축사들이 발굴되어 이 행사가 이 시대 한국 건축을 종합하고 대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남의 귀한 작품을 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무더위에 성실히 심사를 해 오신 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무 불편함 없이 행사를 진행시켜주신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직원들에게도 수고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수상을 하지 못한 응모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리며 이들 한 분 한 분 모두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며 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 **변용**

## 대상

&lt;준공건축물 \_ 사회공공부문&gt;

##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설계자(대통령상) | 유태용 \_ (주)테제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주)대우건설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아주 제한적인 대지조건에 대규모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 프로젝트로 기존 캠퍼스의 축과 동선들을 살리면서 특히 기존 도서관의 건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른 시도로 접근하며 캠퍼스에 부족했던 Landmark의 역할을 도서관 Complex에 부여하고 있다. 친환경적 요소로서의 입면은 단순하지만 여러 색깔을 띠며 아주 어지러운 캠퍼스의 여러 건물들을 은근히 압도하면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도서관 관람실 자체의 수퍼스트럭처와 내부는 현대의 감각에 맞는 충분히 현대감을 준다.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복잡한 문제들을 잘 풀어낸 작품이다.













## 대상

&lt;준공건축물 \_ 민간부문&gt;

## 전북현대 축구단 클럽하우스

설계자(대통령상) | 조병욱 \_ (주)서아키텍스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현대엔지니어링(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현대자동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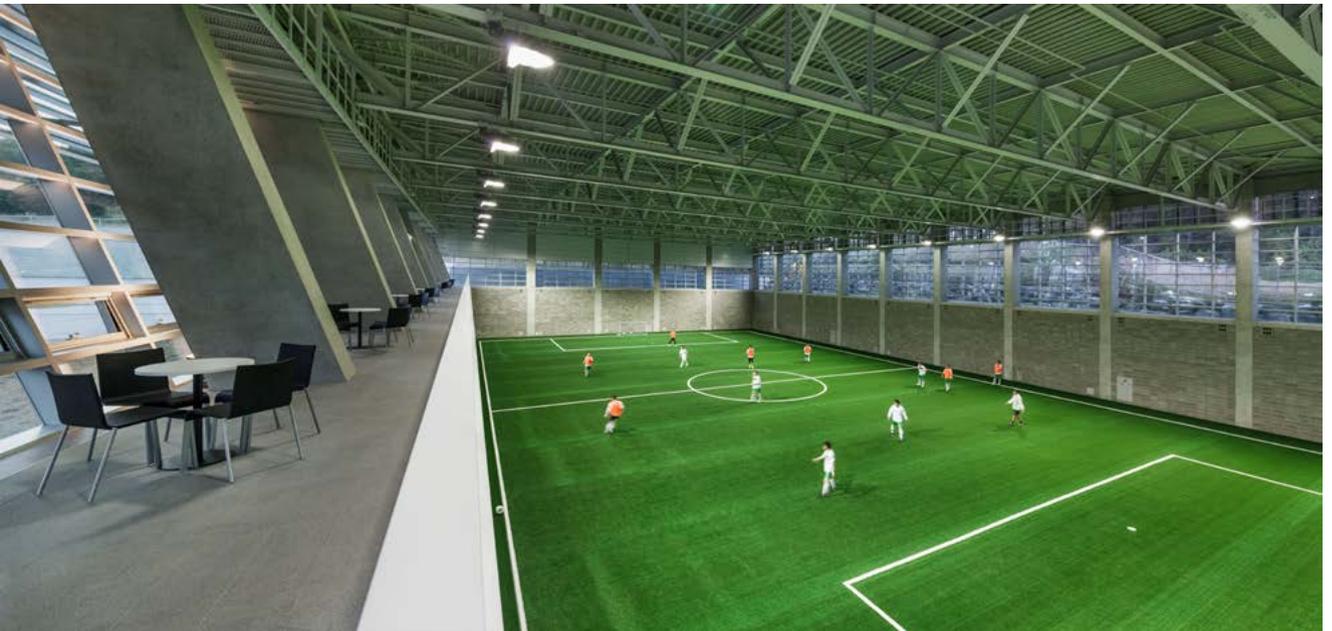
단순한 단지계획에 주변 지형을 고려한 배치계획은 좋은 계획의 시작이다. 그리고 축구단의 다이내믹함을 나타내는 입면은 사용용도와 건축주가 자동차 회사라는 점을 충분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평면구성의 단순함, 효율성, 명쾌함은 건축설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가지면서 무리하지 않게 건물을 상쾌하고 건강하게 풀어냈다. 매스의 둔중함을 지면과의 틈(slit)을 두어 해소하고 조형(造形)과 일치하는 내·외부 마감 재료의 줄눈계획 등 디테일의 완성도가 높은 수작이다. 커뮤니티와 공공의 용도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배치적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 아쉽다.











## 대상

&lt;준공건축물 \_ 공동주거부문&gt;

## 서울강남지구 A4BL 공동주택

설계자(국토교통부장관상) | 이민아 \_ 건축사사무소 협동원  
 시공자(대통령상) | 현대아산(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훌륭한 건축사가 얼마나 우리 환경,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2015년에 수상작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 시공완성도가 약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시장에 참신한 새로운 평면, 단지 구성, 특히 지상 1층 부분에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과장되지 않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함이 돋보인다. 특히 경사지인 지형과 뒷산을 잘 해석하여 배치했고 공공 공간에서 산으로 하늘로의 통경은 즐거움을 더한다.













## 대상

&lt;준공건축물 \_ 일반주거부문&gt;

## 부산 S주택

설계자(대통령상) | 황준 \_ 황준도시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이우석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이우석



요즘 미디어에서 각광받는 현란한 주택들 홍수 속에 아주 기본적인 평면으로 단순하고 탄탄하게 계획되었으며 상업용 디테일을 주택에 적용하여 새로운 스케일 감, 명쾌한 입면 계획으로 다른 주택과 차별화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최근 주택 디자인에 있어 가장 단골 재료인 노출콘크리트에서 벗어난 시도가 돋보인다. 주택 내·외부 곳곳에 숨어있는 디테일은 건축사의 완성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주거의 가치 향상으로 건축주를 설득한 동력인 듯하다. 하지만 아름다운 바닷가 쪽으로의 전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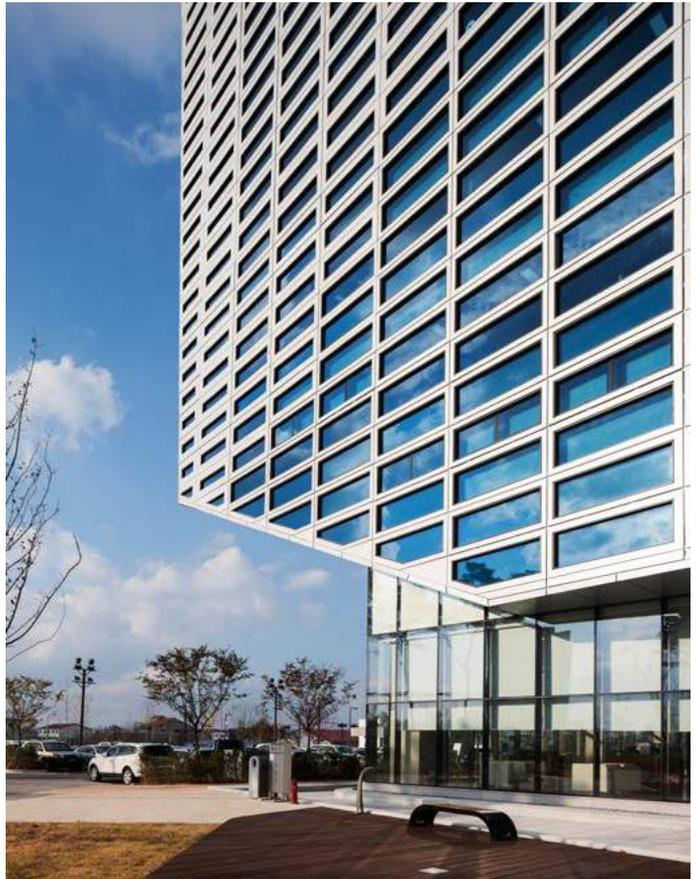
**본상**

&lt;준공건축물 \_ 사회공공부문&gt;

**전력거래소 본사사옥**

설계자(국무총리상) | 정영균 \_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주)한양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전력거래소





건축주의 전폭적인 협력 속에 탄생한 효율적이며 상징적인 공공건물로 과장되지 않은 비례감과 입면으로 나주 혁신도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올해 출품된 수많은 공공 설계경기와 턴키시스템으로 발주된 프로젝트의 사생아적 결과물과 대비되는 건축물로 에너지 세이빙 효과도 자연스럽게 해결한 작품이다. 소형 측면에서 건축물 가운데 오픈된 공간의 시각적 효과는 강렬하지만 인접한 실내·외 마감 재료의 선택과 섬세함이 부족한 디테일은 설계자에게 시공에 대한 아쉬움으로 돌아올 것이다.





**본상**

&lt;준공건축물 \_ 민간부문&gt;

**다음스페이스닷키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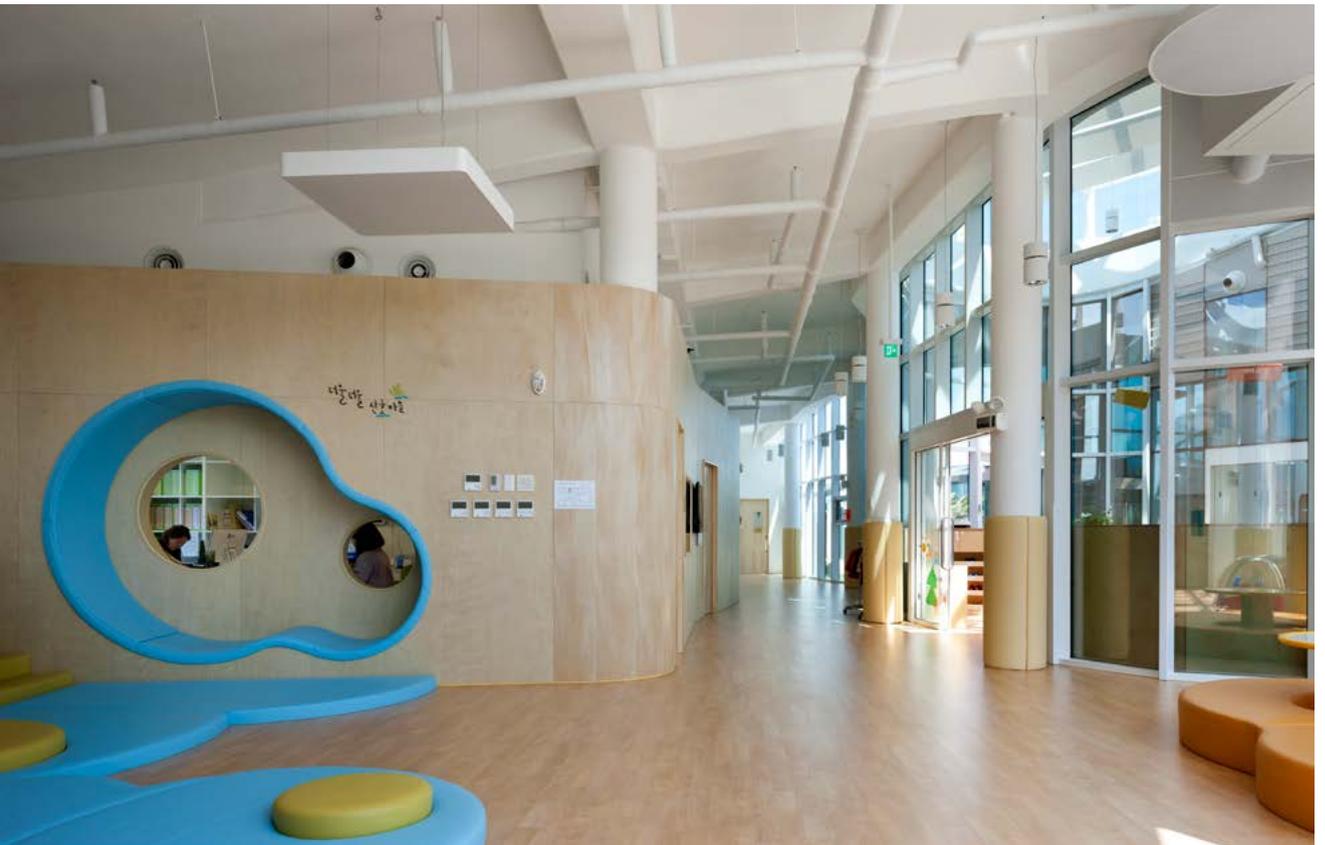
설계자(국무총리상) | 신승현 \_ (주)아이마크 건축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계룡건설산업(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주)다음카카오



제주도의 상징인 오름을 잘 활용했고 비바람 많은 자연환경과 유아, 영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상징으로서 옥외공간들은 성공적이다. 이 외부공간을 통해 내부와 외부가 하나가 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멀리 창 너머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소통이 되는 공간은 요즘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위탁기관의 어린이 관리 문제를 충분히 예방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이고 즐거운 커뮤니티를 이룬다. 조금은 과도한 스케일과 디테일은 어린다운 집을 방해한다.







## 본상

&lt;준공건축물 \_ 공동주거부문&gt;

## 대신센트럴 자이APT

설계자(국토교통부장관상) | 최재현 \_ (주)합동 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무총리상) | GS건설(주)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고밀도의 어려운 대지에 각 세대의 통풍,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가운데 센트럴 파크를 이루어 낸 점이 자랑이다. 전면의 탑상형 주동을 과감하게 이격시키고 뒤따르는 주동 역시 이를 따라 배치하여 확보된, 대구에서 가장 큰 대로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중앙공원은 도시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다. 다소 진부한 주동의 입면계획은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대지 북측 주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격은 되었지만 32층의 판상형 주동의 매스로 인한 시각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다.







**본상**

&lt;준공건축물 \_ 일반주거부문&gt;

**동탄 캥거루 패시브 하우스**

설계자(국무총리상) | **윤태권** \_ 엔진포스건축사사무소  
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상) | **송인광**  
건축주(국토교통부장관상) | **송인광**





주택의 기본인 자연으로부터의 보호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패시브 주택으로 해결하여 주택의 기본적인 자세에 충실하였으며 두 세대를 제안하여 핵가족시대와 장래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참신한 방법이 눈에 띈다. 다소 과장된 다락방 등은 필요 이상의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원론적인 건축에 거슬리며 많은 계단은 수평적인 분할보다 수직적인 분할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더한다. 그리고 표정 없는 입면은 커뮤니티 형성에 장애일 수도 있다.





**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gt;

**한전KPS주식회사 본사 신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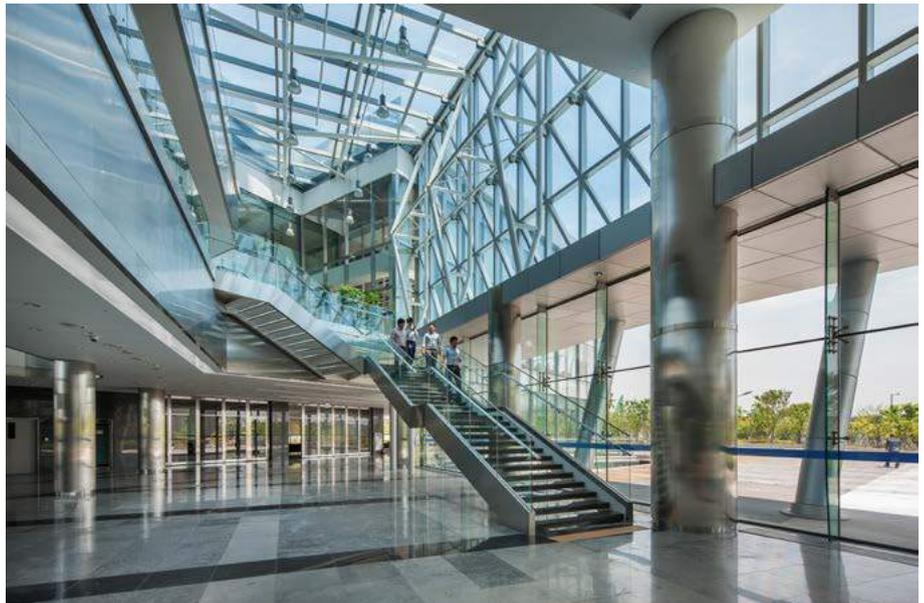
설계자 | 정영균 \_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계룡건설산업(주)

건축주 | 한전KPS 주식회사



나주혁신도시에 새롭게 이전한 공기업의 이미지와 세계 제일을 꿈꾸는 종합플랜트 회사의 미래지향적인 상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형태로 구성된 건물외피 디자인이 단연 돋보인다. 전망 확보를 위해 타워의 남향 배치를 포기했지만 인근 건축물보다 월등한 규모(지상19층)로 주변을 제압, 인접 중앙호수공원 등 주변과의 조화에는 실패하면서 우월감을 뽐내는 독불장군의 이미지를 지우지 못했고 대형 로비의 규모도 의문스럽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정부세종청사 2-2구역

설계자 | 윤세한 \_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대림산업(주)

건축주 | 행정자치부



국제공모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사구역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Continuous Tangential Line 구성 원칙을 준수하고 전체 청사의 동질성 확보라는 대전제가 대지의 가로구조와 어색하게 결합되면서 과도한 디자인으로 귀결되었다. 마스터플랜의 이념(LINK)을 수용하지 못하고 1층 외주부에 웬스를 둘러쳐버린 발주처의 미숙함과 전체보다는 부분에 대한 기억이 남게 되는 옴니버스식 입면들은 아쉽지만 기능을 고려한 편복도 배치와 지루할 법한 이동 공간에 다양성을 확보했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 치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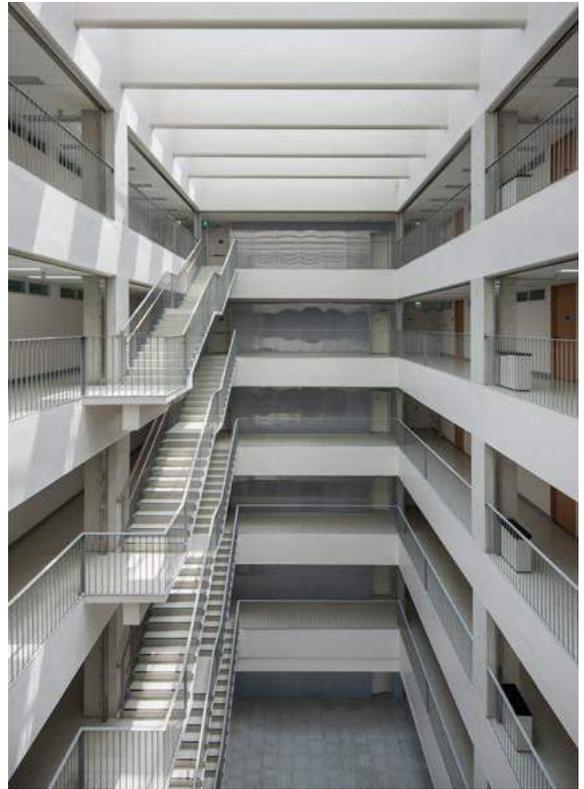
설계자 | 신동재 \_ (주)다올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태흥개발(주)

건축주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캠퍼스 북측 끝자락에 위치한 다양한 레벨로 형성된 대지에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병원과 연구실, 센터 기능을 하나로 묶은 건축물이다. Solid한 Mass 내 곳곳에 Void 공간을 삽입하여 내부공간의 다양함과 수직차양 등 적절한 외관 요소를 활용,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디자인을 완성했다. 하지만 Campus 내 대학 간의 소통부재로 대지사용의 한계로 인해 대지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된 건축물의 진입은 불리한 지형조건을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피곤함으로 다가온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신사옥

설계자 | 최창섭 \_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현대건설(주)

건축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거대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은 큰 사회적 이슈였고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에 걸맞은 내부적인 기능의 해결도 큰 문제였다. 진주로 이전한 LH 신사옥은 엄청난 몸집의 지방이전으로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일이었다.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무리 없이 잘 수행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과감한 조형 언어는 LH공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표현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과시적인 과장된 건축적 언어는 주변을 지나치게 압도하여 위화감을 주는 형태로 보이고 외부와는 유리된 사무공간과 공용공간과의 부조화는 우리사회의 공공기관 건물의 일반해를 보는 것 같아 못내 아쉬웠다.



**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gt;

**동화고등학교 송학관**

설계자 | 임정택 \_ (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식회사 도림

건축주 | 학교법인 동화학원



대지에 순응하는 삼각형 형태의 배치는 학교건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배치로 2층 중간에 위치한 중정은 학생들의 휴식과 안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작품이다. 3층부 낮은 층고가 주는 공간적 제약과 내부 복도부 소음문제, 3층 복도부 자연환기문제 그리고 남서측에 면한 교과실 등의 자연채광에 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함안 가르멜의 모후 수녀원

설계자 | 이한중 \_ (주)스튜디오이일공오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에이스건설산업

건축주 | 가르멜의 모후 수녀원

봉쇄 수녀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건축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건축주와의 협업과정이 돋보이는 합리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 2개로 분리된 내부 중정은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봉쇄 수녀원의 특수한 생활패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다만, 공간에 담고 있는 내용에 비하여 전체적 스케일이 왜소하여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춘천 네이버 지식 정보 캠퍼스

설계자 | 김혁\_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 디엠피

시공자 | 대림산업(주)

건축주 | 네이버주식회사



매우 혁신적인 재료의 선정과 완성도 높은 디테일은 무척이나 건축사의 정성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특히 자유로운 학습과 격이 없는 토론문화를 권장하는 네이버의 정신을 공간 곳곳에 창출하고자하는 노력이 엿보인 작품이다. 다만, 건축사의 건축적 유희에 너무 집착하여 공간의 소소한 부분에서 오히려 네이버정신에 역행하는 공간창출이 아쉬운 작품이다.



**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gt;

**화인링크**

 설계자 | 김수영 \_ 건축사사무소 숨비  
 시공자 | 다산건설엔지니어링(주)  
 건축주 | (주)화인링크


파주출판산업단지내 격자형으로 조성된 필지에 건축주의 프로그램상 요구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공장으로서의 생산과 디자인 회사로서의 독특한 업무특성을 성실히 반영한 작품으로 보인다. 평면 중앙에 중정공간의 정원을 계획하여 자연요소를 실내에 끌어들이는 점과 천창을 통한 실내 자연광의 도입으로 비물질의 물질화 수법이 인상적이었으며 1층 진입부의 낮은 천정과 로비의 높은 천정고를 통한 공간의 극적 대비, 노출콘크리트로 마감된 실내 공간에 일방향 슬래브를 적용한 기법 등은 디자인에서 창의성이 돋보이나 1층 로비공간에는 조도가 부족하여 침침함을 주는 점과 자연환기를 통한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높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gt;

## HK 사창리 공장

설계자 | 임재용 \_ 건축사사무소 오씨에이

시공자 | (주)평화건설

건축주 | (주)에이치케이



박공형태의 샌드위치패널 마감의 진부한 기존 공장 전면부지에 매시브한 노출콘크리트와 투명한 유리로 마감된 외벽면의 조화가 공장부지를 진입하면서 압도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특수강을 정밀 가공하는 하이테크한 공장의 이미지를 꾸밈이나 치장없이 잘 소화한 작품이다. 공장으로서의 생산부분과 일반 업무 및 부속공간을 부지의 경사면을 따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중정공간을 통하여 자연요소인 수목을 실내공간에 적용한 점 등이 돋보인다. 그러나 옥상의 바람정원은 휴먼스케일 보다는 삭막함이 느껴지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정원이기 보다는 특정 엘리트만을 위한 정원으로 인식되었다. 외벽 창호는 자연환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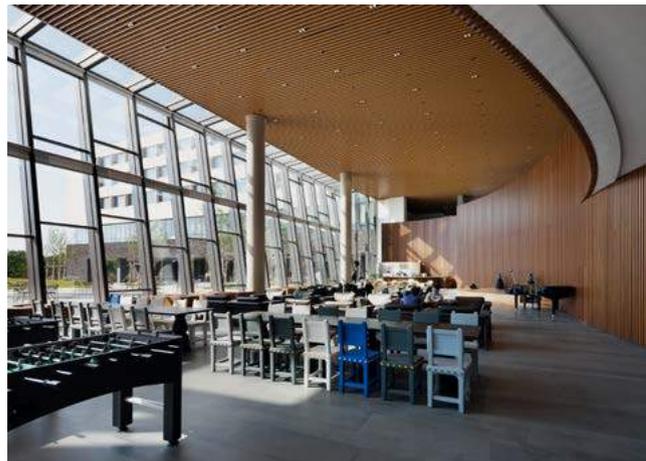
설계자 | 김관중 \_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삼성물산(주)

건축주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원의 교육, 집회, 연수 및 숙박기능 등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의 프로그램상 요구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으로 H자 형태의 배치와 그에 따른 다양한 외부공간의 형성이 돋보인다. 다중을 수용하기 위한 넓고 시원한 로비공간과 시선을 머물게 하는 실내가구 및 자연채광, 400석 규모의 넓고 개방적인 식당공간, 노출콘크리트의 경사진 벽면을 따라 수직으로 연결된 내부 일자형 계단과 자연채광의 조화는 건축의 본질이 형태나 외피가 아니라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실내 마감재의 품질이나 시공의 완성도는 매우 우수했으나 연수원 일부시설의 개방 등 낙후되고 난개발 된 주변지역과의 관계 맺기 등 건축의 공공성 측면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아쉬운 작품이다.



**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gt;

**가까운 교회**설계자 | **곽희수** \_ (주)이템 건축사사무소시공자 | **예장건설(주)**건축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가까운교회**

도시적인 맥락이 희미한 장소에 새로운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물이다. 교회라는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적인 시도와 그 시도를 무리 없이 소화해낸 설계자와 시공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업이다. 아파트와 인접한 북쪽의 닫힌 입면과 공지와 인접한 남쪽의 열린 입면이 조형적인 충돌 없이 유연하게 처리 된 점과 자연스럽게 내부로 접근 할 수 있는 외부계단의 배치도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다. 다만 다양한 접근과 열린 공간을 지향하다보니 생겨나는 산만한 공간과 동선의 구성이 교회라는 기능에 다소 장애의 요소로 되는 점은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인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세종 힐스테이트

설계자 | 정영균 \_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현대건설(주)

건축주 | 현대건설(주)



내부에 맞바람 구조를 적극 도입하여 탑상형 아파트의 단점인 통풍구조를 개선한 환경친화적인 태도와 그에 걸맞는 단지내의 녹지조성은 이 아파트를 돋보이게 하는 큰 장점이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인 점과 근처에 조성되는 주거단지와의 소통이 없다는 점과 기존 아파트와 비교하여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조형적인 도시적인 맥락의 미숙함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캥거루 하우스

설계자 | 허진성 \_ (주)유현준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김민기

건축주 | 김민기



두 세대가 함께 사는 집으로서 재료의 표현과 출입부는 각자의 독립성을, 수직적인 변화들(계단, 보이드)은 소통의 장치로 두드러져 보인다. 내 외부 재료의 사용 방식, 다양한 건축 요소들의 도입, 가구와 소품의 연출 등은 주택 그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반면 유사한 규모와 기능을 반복하는 주변 맥락에 대해 함께 고려된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주 출입구의 배치 방식과 스케일, 주택 내부 수직 동선의 분절은 규모와 사용성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럽게 못한 느낌을 준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틈틈집

설계자 | 강영진 \_ 아키후드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김문경

건축주 | 김문경





1층은 주차장과 근린 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2가구 총 6가구가 중정을 두고 구축되어 있어서 저층 부분의 개방감과 입체적인 볼륨감을 드러내며 유사한 건물들이 마주한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각 가구는 다시 3인이 주방과 거실, 욕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풀어내면서 건축 계획의 섬세함을 잘 보여준다. 계단, 발코니, 중정은 본연의 기능을 담기에는 스케일이 적절하지 못하며, 진정한 의미의 쉼어 하우스로서는 각 주거의 폐쇄성, 매개 공간의 질과 면적의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Y-하우스

설계자 | 정웅식 \_ (주)은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이현자

건축주 | 이현자



대지의 조건과 그 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건축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일과 거주, 두 기능을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해 수직적으로 분리하였고, 조망과 공간 배치를 위해 수평적으로 분절하고 축을 변화시켜 구축의 개념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자연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조형성과 함께, 기존 주택의 일부분을 통합하고 중단열을 이용한 노출콘크리트 시공은 설계자의 집중력과 노력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외부 공간으로부터 주택으로 진입하는 과정과 주택 내외부의 공간적 감흥은 다소 단조롭다고 생각한다.



#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5

계획건축물부문

## 행사일정

- ▶ 공모 : 2015. 3. 2 ~ 5. 29
- ▶ 참가신청(인터넷신청) : 5. 26 ~ 5. 29
  - kaa.kira.or.kr
- ▶ 접수
  - 1차 작품계획안 접수 : 6. 2 ~ 6. 3
  - 2차 패널 및 모형 접수 : 7. 14
- ▶ 심사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6. 12
  - 2차 패널 및 모형 심사 : 7. 15
  -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7. 17
- ▶ 시상식 : 11. 5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 수상작 전시 : 11. 2 ~ 11. 6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로비

## 심사위원

오동희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_심사위원장

김형수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주)

김진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현

이은석 경희대학교

김진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대상

| 혼자라는 건...

## 최우수상

| 유유자적의 도시

낙후된 자폐공간, 사회적 담화공간으로서 재생모델 제안

| 방들의 사회

## 우수상

| 남겨진 鐵路, 다시금 마을路

어뱌핑

| 강강이길 온나, 온 나

공공의 積 \_ 공유공간을 쌓다

제2의 삶

버티컬 포차

| 남산의 녹(綠)이 도시에 흘러내리다

## 입선

| 아트 팩토리

빼앗긴 들에 찾아온 봄\_상방동 선광구조물을 통한 재생방안

빈집기능 재설정을 통한 촌스러운 미래, 해방촌

비단길, 이야기를 따라간다

수암골

두두리 :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 덩

| 성요셉 아파트\_Rejuvenation with Urban Sampling

세월 너머 세월

잃어버린 골목길의 기억

Boy's life in 청계천

중앙시장 노점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

| 서촌, 길에서 만나다

## 계획건축물부문 심사 총평

건축은 시대의 모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건축의 변화와 도약은 눈부실 정도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유기적인 변이가 발생하듯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 그 이면에 내재하는 건축의 사회적 영향에 있어 부정적인 원인 또한 우리 건축이 잉태한 또 다른 현상이다. 건축은 그런 의미에서 다중적이다. 2015년도 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의 주제를 ‘해학적 창조를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젊은 학생들의 생각을 구하고자 한 것은 다분히 우리의 건축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의 끝이 보이지 않고 그 길 위에 놓인 많은 기성의 사고가 갖고 있는 폐쇄성을 탈피함으로써 현상의 반작용으로서의 해학이 새로운 창조를 찾고자 함이며 그 결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위의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이 적절하였는지, 또 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건축적인 가치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따라서 참가작품이 주제에 대하여 충실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과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었다. 그 다음 중요하게 본 것은 최종 결과물에 내재된 작품의 과정에서의 연계성이었는데, 각각의 작품이 성립되게 된 동기와 결과의 인과성에 대한 충실도가 그 심사기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에 나타난 건축적 표현에서 얼마나 정밀하고 계획적으로 주도적인가를 잘 제시하고 있는가, 즉 작품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보았다.

제출된 총 300여 작품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제시했음에도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나, 의도가 불분명한 작품들을 배제하였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 중에도 작품의 논리성과 완성도 면에서 충실함에도 주제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면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로 보아 ‘해학’, ‘창조’,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서로 다르면서도 때로는 서로 결합되어 짐으로써 인간의 삶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보이는 작품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작품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는 발전된 패널과 모형을 놓고 진행되었는데 1차 심사에서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최종 심사는 각각 10분간의 발표 및 질의를 통해 작품의 주제와 계획내용, 그리고 이로 인한 건축을 통한 영향력 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참가자 모두 열정을 가지고 임

하여 참가자 상호간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최우수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토론 중에도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주제와의 관련성과 창의성 그리고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었고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최우수작과 대상 수상자를 확정하게 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혼자라는 건’은 좋은 건축이란 공동성과 관계를 인식하고 건축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통상적인 입장과 달리, 그것을 개인성이라는 문제로 인식하고 오히려 이것을 심화하여 인간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비일상적 건축환경으로 전개하며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새로운 조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매우 유기적이고, 발전학적인 사고를 잘 표현한 작품으로서 주제가 요구하는 요소를 잘 제시하였고 앞으로도 더 심화된 연구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낙후된 자폐공간, 사회적 자생공간으로서의 재생모델’은 건축적인 가능성과 계획적인 완성도가 참가작품 중 가장 높은 작품으로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즉 아파트로 둘러싸인 건축환경에 대한 개선으로서 실현 가능성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이 주제가 요구하는 ‘해학적 창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물리적인 건축환경에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또 이전의 다른 작품에서도 제시되었던 제안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유유자적의 도시-호모루덴스 시티’는 기존의 도시조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조직을 삽입함으로써 도시회복을 꾀하는 건축적 제안으로 판단된다. 도시의 흔적을 읽고 문맥적으로 가치가 있는 요소들을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강제되어 온 도시의 인문적 단절과 건조함을 놓이하는 인간의 장소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건축적인 장치를 비교적 단속적으로 삽입하는 행위를 제안하고 있다. 해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의도적 불균형과 무의미한 공간관입은 완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미완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적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들의 사회’는 서울 도심의 쪽방촌을 도시인문적 관점에서 ‘잡종’이라는 장소로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으로 탈바꿈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주제와 일치시켜서 해석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소재를 선택하였음에도, 건축의 물리적 결과물이 내포하는 사회적 요소들을 잘 분석하고 이것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도시회복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충실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작품들 또한 앞으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심사위원들의 논의 결과 지나치게 논리적 비약이 크거나, 주제와의 관련이 부족한 작품이 선정되지 못한 점을 작품의 우수성 여부를 떠나 주제와 계획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그 차이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통해 미래를 한국을 준비해 나갈 젊은 건축인들에게 탐구정신에 대한 열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 노력과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날로 성장하므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리더가 탄생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기쁜 마음으로 지켜본다.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심사위원장 **오동희**

---

올해의 주제 (“Rejuvenation with slight gesture”)가 보여주듯이 해학적 창조를 통한 회복은 건축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에 적합한 창작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다소는 생소할 수 있었으나, 참가작품 모두가 학생 때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주제의 선정부터 3번의 작품심사를 통하여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공통된 주제가 주어지긴 했으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건축학도들의 열의와 개성 넘친 작품세계를 보면서 작품심사에 조금 더 공정하게 합당한 원칙을 가지고 각 단계마다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에 수상된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였고, 보다 더 창의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어 보람되었다.

판넬 및 모형 심사에 이어 각자의 PT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고, 작품의 완성도면에서는 다소 미비하였으나, 주제를 건축화하려는 노력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만 사회에 나와서도 전문 건축인으로서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번에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이 상이 앞으로 건축을 하면서 기대이상의 힘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오동희위원장을 비롯한 이은석교수, 김진욱교수, 김형수건축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해학적 창조를 통한 회복’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제시된 수많은 안들 중에서, 과연 건축이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위트 있는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작품들이 기존의 많은 국내 공모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생과 도시계획 중심의 프로젝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재생과 도시규모의 관점에서 왜 해학의 창조성을 발견할 수 없겠는가? 하지만 이번 주제를 통해서 발굴하고자 한 건축적 담론이 바로 개별성과 고유성에 대한 연구가 아닌가 싶다. 창조적 해학은 지극히 개별적이기 때문이다.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심사위원 **이은석**

이번 공모전 주제는 엄숙함을 탈피하여 쾌활하고 위트가 있는 건축물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건축은 도시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매우 강력한 매체이며, 현학적이고 엄숙하기만 한 건축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시 한 번 건물을 보게 되는 이러한 결과물을 요구하였다. 건축 디자이너의 촌철살인에 유쾌한 반응을 보이는 사용자와 시민의 반응이 있는 위트가 있는 건물이 가끔은 필요한 세상이다.

그러나 공모전의 주제가 요구하는 유쾌함과 기발함이 표현된 작품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해학적이라는 단어의 해석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주제가 예년과 같이 도시를 주제로 하는 부분적인 재생이나 리모델링을 다룬 작품이었고, 공모주제의 내용을 충실히 표현하여 제출된 작품은 드물었다.

수상작에 선정된 작품들은 많은 출품작중 심사위원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받았던 수작들이며, 완성도면에서 다른 작품들보다 우수함이 뛰어난 작품들이었다. 이번 공모전에 대상을 받은 작품은 매우 철학적이고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형태적인 시도도 매우 독특하였다.

수많은 작품들이 출품자들의 열정과 주제선택, 분석, 평가와 대안제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심사를 하는 동안 심사위원들을 모두 흐뭇하게 했으며 주어진 시간에 많은 작품을 심사하느라 제출자의 생각과 의도를 꼼꼼하게 보지 못한데 대해서는 미안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들의 공모전에 보여준 건축에 대한 열의를 보면서 우리건축의 미래에 대한 에너지를 보는 듯하였다.

이번 공모전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축하를 드리며 수상의 기쁨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께 건축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고 매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모전 참여를 통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축을 이끌어 가실 주역으로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문화대상 계획부분의 2015년 주제는 “해학적 창조를 통한 회복” 이었다. 우리나라 학생 건축공모전이 다소 무거운 방향으로 흐르고 건축을 이해하는 방법도 난해하고 책임감이 지나친 경향에서 일탈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 중에는 그 몸짓이 심사위원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머러스한 작품에서 섬세한 배려로 지긋한 미소를 짓게 하는 작품까지 공모취지를 잘 살린 작품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학생들의 작품에서는 건축이 사회의 많은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작업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결코 가벼울 수만은 없는 우리의 시대적 부담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출품된 작품들은 다양한 주제에서 저마다 개성 있는 문제해결 방식을 보여주었다. 쪽방촌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방식에서부터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주택의 재건축 방법의 제안, 아픈 기억을 담아내는 추모원까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건축에서 담아내었다. 전체 작품의 수준은 준수하였으나 1차 심사 후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2차에 제출된 작품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출품자들이 2차 심사에 제출하는 모형 제작에 집중한 것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실제 심사위원들은 모형의 세세함보다는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창의성을 비중 있게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은 인간의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공공의 장소에 표현한 “혼자라는 건” 이라는 작품이다. 이는 공간을 다루는 세련됨이나 설계의 주제를 흐트러트리 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로 풀어가는 모습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각 공간의 연결성과 통합성이 다소 미숙하기는 했지만 개별화된 공간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한 결과물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출품한 학생들은 최종 프리젠테이션까지 먼 길을 달려왔고 과정도 험난했을 것이다. 그들이 흘린 소금 땀과 하얗게 세운 밤들이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단단한 길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 대상

&lt;국토교통부장관상&gt;

## 혼자라는 건...

이형민, 명정미 \_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현대 사회는 공동성 보다 개인성에 대한 비중이 커져가면서, 과거 공동성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덜 필요하거나 아니면 필요를 오히려 회피하는 사회적 고립을 양산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성보다 개인을 앞세워 개인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위와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개인성과 공동성의 균형은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 건강한 사회로 발전은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특정한 장소에서 개인성의 문제를 온몸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의식중에

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통해 지금 자신이 인지한 것에 대해 잠깐의 생각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생각의 시작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개인성이 가지는 (-)적인 요소를 인식하게 되는 장소**

1. 진행 방향에 방해가 되는 기둥들이 튀어나온 장소.
2. 진행하는 방향에 방해가 되는 벽(옆 레인으로 움직이는)이 있는 장소.
3. 모자이크로 구멍이 뚫린 벽으로 분리된 장소.
4. 서로를 마주보게 원형으로 놓인 의자가 있는 장소.

**최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gt;

**유유자적의 도시**

김해수, 박주석 \_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proposal \_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반면 놀이는 자기목적적이며 무목적적인 활동이다. 후이징가Johan Huizinga는 놀이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다가오는 비극을 걱정하면서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을 제안하였다. 그는 놀이가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문화가 놀이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역전시켰다.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즉, ‘호모 루덴스의 충동이 만들어낸 놀이정신이 없을 때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놀이에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이 있다. 첫째, 놀이란 현실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

고자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둘째, 놀이의 대상자는 현실을 이탈한 존재이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무목적의 대상인 것이다.

**diagram \_놀이의 장**

우리는 놀이의 장self-play field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성과 일방향성으로 일관화 되어있는 안양시를 놀이의 장 안에서 개인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느슨한 질서self-selection를 부여하고, 호모루덴스는 이 영역을 유유자적悠悠自適 하며 자기 선택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최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gt;

구준모 \_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 낙후된 자폐공간, 사회적 담화공간으로서 재생모델 제안



기존 리모델링 방안은 신 구조체의 하중이 기존 건물에 가해지지만 이러한 방식은 낙후된 아파트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기존 건물에 하중을 가하지 않는 자립형 구조체를 생각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 확장 및 분화 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저층부 공용 공간 프로그램으로는 공실률의 증가에 따른 잔여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뚫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자폐공간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의 저층부를 도시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기존에는 지상 층에 배치되어있던 주차장을 아파트 1층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기존의 주차장

이었던 지상 층은 도시를 위한 자생적 공간이 된다. 이곳에는 공동텃밭, 시장, 놀이터, 공원 등이 위치하며, 아파트의 저층부에는 보육시설, 상업 시설, 노인시설, 프로그램이 위치한다. 이는 프로그램간의 연계성에 따라 배치시켰으며 자생적 공간은 자생모델에 의해 생활자가 점진적으로 완성시켜나간다. 아파트의 저층부와 자생적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도시 내 새로운 공공공간을 내어주고 도시회복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물리적 문제점들은 아파트단지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아파트가 더 이상 도시의 낙후된 자폐공간이 아닌, 새로운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길 기대한다.

**최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gt;

**방들의 사회**

이슬기, 이효은 \_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쪽방촌의 주거 형식은 기존에 존재하던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과는 성격에 차이를 가진다. 방과 방, 그리고 이와 독자적으로 방의 외부에 공유공간을 가진 건물들의 집합이라고 쪽방촌을 정의할 수 있다. 쪽방촌에서 복도는 커뮤니티의 공간이 아닌 단순한 통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복도의 성격을 확장시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마당으로 치환하고자 했다.

쪽방촌의 대상을 고민한 계획이었기에 주거단위의 크기는 최소한의 주거 유닛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거주인구수를 맞추고자 하였고, 또 유닛의

조합을 다양하게 계획함으로써 다른 대상지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주거 유닛의 단위는 '한 칸'으로 한국 주택의 전통적 기둥간격인 '8자'에서 고안하였고, 골조 구조로 형성된다.

유닛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한 명당 한 칸으로 보았다. 그러나 각각의 칸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주거 영역내의 내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일부는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1인 주거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삶의 모습에서 다인이 함께 생활을 공유하고, 자생적 활동이 가능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남겨진 鐵路, 다시금 마을路

강민우, 황길현, 최연호 \_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마을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주거와 같이 있던 상업공간은 경제구도의 변화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 둘째로는, 이 모호한 풍경 속에서 충돌하는 주민과 탐방객들의 갈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생산력과 밀접한 마당(텃밭) 확보와 동선 분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적 재생 방안으로 첫째, 컨테이너를 활용했다. 이것은 마을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공간의 재활용과, 실용성 그리고 기존 주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 전환을 일으키고자 했다. 둘째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중심으로 수직 마당을 포함하는 동선의 데크를 만든 것이다. 이는 외부인과 동선을

분리시켜 주민들만의 커뮤니티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주민(상인)들의 부가적인 공간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점 등으로 활용되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마을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듯하지만 어렵다.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들의 생활권 보장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내세워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그 마을은 다시금 재생하고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경암동 철길마을의 문제점을 다루어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 것에 의의를 두었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어뮬핑**

엄동섭, 손유광 \_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우리가 캠핑이라는 것을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마천루의 자연은 조금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 도심 속의 빌딩 숲과 거기서 보이는 자연, 빌딩숲 조명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진 야경 등이 새로운 자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심의 자연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중 캠핑장’을 떠올리게 되었다. 따라서 캠핑을 위한 최소 단위의 유닛을 설정하고 이러한 유닛을 상부에 위치시켜 조망권을 확보한 캠핑장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런 유닛은 수직, 수평의 조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캠핑장 이용객들은 캠핑장을 찾지만 하면 캠핑장 저층부에서는 차례로 텐트, 조리기구, 기타 캠핑용품을 자신의 용도에 맞추어 대여할 수 있고 이 물품

을 통해 캠핑을 체험함과 동시에 ‘Coleman’이라는 기업을 체험하고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한 가져가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도심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공간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새로운 생활패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런 생활패턴은 곧 도시의 건강성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이용자와 기업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윈-윈’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센텀시티의 공동화현상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기능의 건축을 통해서 센텀시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강강이길 온나, 온나

신성일 \_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강강이길에 있는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과 함께하였지만 현재 방치되고 있는 공간들을 찾아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리노베이션된다. 회복된 공간들을 통해 건물이 가지는 과거의 기억과 시간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보존하게 된다. 마을 일대가 회복이 된다면 다양한 일자리가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고, 다양한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이 다시 활기차게 살아날 것이다.

### 4가지의 리노베이션 방법

1등대는 기존건물의 재료의 연장, 기둥과 포, 프레임 등의 연장으로 구조적 연계감을 주고, 신, 구의 건물을 하나의 공간으로 결합하는 방법이다. 2등대는 구역의 방법은 기존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구조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과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3등대는 구역의 방법은 폐건물, 창고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가지는 특징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해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리노베이션 방법이다. 4등대는 과거의 흔적들(녹슨 폐부품 등)을 벽과 판에 보존시켜 광장이나 설치미술로 리노베이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주변 건물과의 맥락을 유지하고,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다.

**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gt;

## 공공의 積 \_ 공유공간을 쌓다

장일영, 강도임, 김은진 \_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 프롤로그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1인 주거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은 20%를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1인 세대의 유형과 수는 증가함에도 건축적 해결안은 다양성은 물론 이거니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급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인 주거 세대 중 산업예비군에 속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계획방향

공급위주의 주거양식과 획일적, 정형화 되어있는 공간이 반복되는 주거양식은 이용자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오랜 기간 정착하고 지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1인 가구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공유공간은 코어, 복도 같은 편협한 공간뿐이지만 해당 계획의 주 이용층인 청년층을 위한 공유공간을 만들어주고 서로 연결하는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우수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제2의 삶

박종필, 민대일, 정현기 \_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PHASE1\_인간과 건축의 제 2의 삶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시설에 불쾌감을 갖는다. 그렇지만 그 아픔의 시기 또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후대에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나간 과거와의 공존을 통한 공간 재구성으로 현재를 담고, 다시금 사람들이 그곳을 찾을 때, 그곳은 하나의 장소가 된다. 이러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특징을 되살리는 작업, 건축에 제 2의 삶을 주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다. 경제성장 때문에 이전에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못하였

고, 그 이후 수명연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기회가 적으며, 또한 만들 장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인간에게 향상된 제 2의 삶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PHASE2\_보존이 아닌 보전방식의 재생

문화재 보존은 관람만 하는 정적 공간을 형성하며, 결국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외면당한다. 보전을 통한 문화재 활용은 이용자와 이벤트 발생증가로 동적 공간을 창출하며, 기억 속에 남는다.

### PHASE3\_농촌 고령화 및 유희시설을 통한 지역 회복

**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gt;

## 버티컬 포차

신용철 \_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 Approach

생활자(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의 삶의 형태를 유지

### Strategy

기생건축 : 거대 구조물에 달라붙어 힘과 에너지의 흐름을 시공간 속에 드러냄으로써 비대한 공룡과도 같은 낙원상가를 비물질적으로 분해한다. 구 안에서 새로이 생성되어 뿔어져 나오는 에너지 속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게 자신만의 새로운 Home territory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간다. 공간을 느끼는 정신의 가변성을 기대할 수 있다.

### Design Process and Structure

- 포장마차의 가변적 디자인
- 사용자에 따라 지속적이고 무한히 변화하는 개개인의 삶이 투영되는 공간의 형성
- 프레임 설치 후 필요에 따라 유기적 공간 조성이 가능

우수상

&lt;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gt;

## 남산의 녹(綠)이 도시에 흘러내리다

한경수 \_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남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녹지공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산의 녹(綠)이 도시와 단절되어 있다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숨어있다. 그 문제는 남산을 두르고 있는 소월로(4차선 도로)와 아래 주거지와와의 레벨차로 인해 형성된 높이 10~20m의 콘크리트 옹벽이 남산의 녹(綠)이 도시로 뻗어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녹지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을 선정하였고, 그 중 노후화 된 경사 주거지와 면해있는 후암동 경계를 사

이트로 정했다.

디자인 과정에서 떠올렸던 이미지는 자연을 느끼며 오르내리는 오솔길 같은 공간이었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 흔히 접하던 자연적 요소이다. 이러한 오솔길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공간화 하고자 했다. 그래서 지형에 매스가 얹히고 그 사이사이로 자연이 흘러내리는, 그리고 그 자연의 흘러내림을 따라 계단&램프 등의 건축적 장치를 통해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건축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

# 원불교 100년 기념관 건립사업

Design & Engineering of Won-Buddhism Centennial Memorial Hall construction plan





발주자 : (재)원불교

설계자 : 노형래\_KIRA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원중, 조영채, 조계현, 윤지영, 최윤식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외 10필지

대지면적 7,009㎡

건축면적 2,830.03㎡

연 면 적 25,719.85㎡

건 폐 율 40.01%

용 적 륜 198.73%

규 모 지하 3층, 지상 11층

마 감

- 외부 : 테라코타패널, 금속패널, 석재마감, 로이삼중유리



원만함, 영원성, 소통을 모티브로 하여 원불교의 교리이념을 건축에 담고자 하였다. '해맑은 일원상'은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생명이 움트는 곳을 뜻한다. 정사각형 형태는 사람으로, 솔 형태의 반구는 소통하고 담는 우주를 표현한 것이며, 두 형태를 태극의 띠로 묶는 형상으로 디자인 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시설을 현충로변에, 정적인 공간으로서의 종교시설은 시각적 상징성이 극대화 되도록 한강변으로 배치하였다. 개방공간으로 광장과 마당을 각 시설 사잇공간에 계획하고 한강으로 연결하여 공공성을 갖도록 하였다.

아울러, 입체적인 옥외동선을 통하여 한강과 남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원불교의 교리를 새겨놓은 '비움의 길'과 치유공간인 '명상공간'과 연계 되도록 하여 원불교만의 건축적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담다** 숨[머금음 함]

어느 물안울 그릇 따위에 쓴다.  
어디 배움이나 사상을 익힌 줄, 물, 배움의 귀속이 보람이거나 반영이다.  
우차:의 '마음' 즉 '타다'



**미입구** **문고리**

원불교의 사유(因緣)를 실천할 것을 일컫는다.  
원불교의 교의에 주해서 되어 권리와 부끄러움 없다.



**사운** **반공**

원자(元氣)의 원(源)  
부조(不調)의 원(源)  
문무(文武)의 원(源)  
법률(法律)의 원(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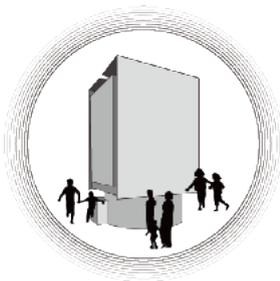
**사운**

자력(自力)의 원(源)  
지자(地資)의 원(源)  
타자(他資)의 원(源)  
공도(公道)의 원(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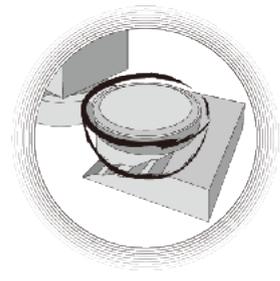



**해마다 새로운 일원상**  
원만함, 영원성,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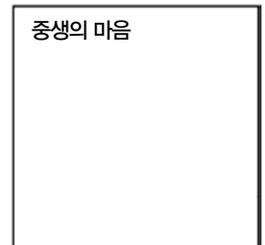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  
이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도록 도형화 한 것이 일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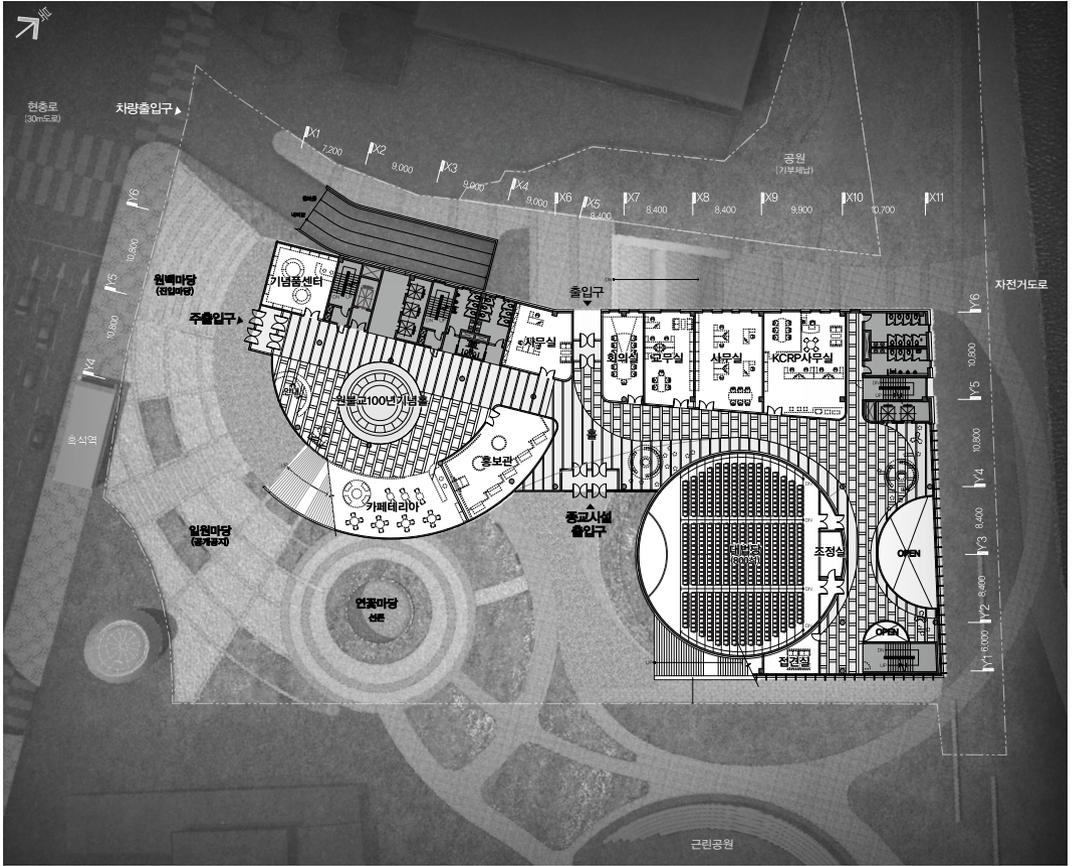
**사람**  
시[사람 인]  
새시대를 맞이하며  
생명이 움트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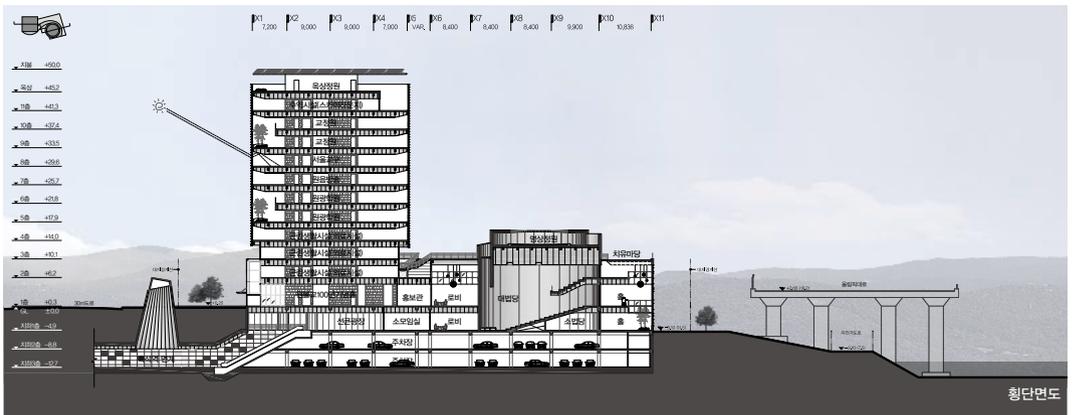
**담다**  
숨[머금음 함]  
새로운 터전  
모든 성자들의 마음







1층 평면도



횡단면도

# 쉬어가는 이야기, 건축 그리고 사람

Relaxing story : architecture and human

글. 김성환\_ Kim, Sung-hwan  
Lanz Architekten und Generalplaner

이번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일중에, 올 한 해를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개개인의 개성이 다양한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에 대한 하나의 호기심과 같은 것이었다. 이 호기심에서 시작된 지난 1년여 간의 인터뷰는 한 달 혹은 두 달 이상 반복되는 준비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건축분야가 가지는 특성상 음악, 미술, 공학 등



2012년 팀원들과 함께했던 Michel Casertano(가운데 아래)

다방면에 걸쳐 테마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나눈 이야기에 큰 보탬이 되었다. 특히, 현실적인 고민과 스스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점은 항상 고무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으로 대화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점은, 교육의 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맞닥뜨리는 현실 속의 냉정함은 본인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그 장애물을 스스로 넘기 위해 끝까지 몰두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끈기는 이곳 유럽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중에 하나였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를 것이 크게 없다고 본다. 다만, 끈기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자신이 가지는 장점을 스스로 극대화 시키는 점은 유럽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사회에서 언급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는 자세 역시 인상적이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겹치고, 그들이 태어나고 성장해온 시간과 공간이 매우 다르기에 함부로 타인의 상황을 단정 지으려 하지 않았다. 건축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더욱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다양성과 다각성이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다. 실제로 교과서나 강의에서 바른 말처럼 들리는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들은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지난겨울에 인터뷰가 진행된 Michel Casertano씨와의 경우 그는 실제로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축구를 한번 하면, 그의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그대로 드러나고는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과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전체가 함께 함을 도모하여 팀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데, 그의 이러한 자세는 회사에서도 연결이 되어, 그가 보여주는 리더로서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는 한다.



Atelier Brückner 사무실 풍경, Michel Casertano씨의 작업환경



작가 신봉철

한편으로는, 매번 기사 마감과 본업사이에 쫓겨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던 탓에 항상 더 잘 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왕복 7~8시간 되는 곳을 찾아가 대화하고, 돌아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글로 옮기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준비하는 나 자신에게는 다른 이의 생각을 감사하게도 공유할 수 있다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글과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주던 많은 분들은 반복된 일상생활에 한 번씩 쉬어갈 수 있

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질문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고민들을 끝까지 공유하려 했었고, 본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끈기 있게 한걸음씩 나아갔는지에 대해 열심히 대화했다. 언어에 대한 제약이 사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바탕으로 탐구하는 자세로서 또한 각자의 인생을 서로 관찰하는 자세로 만나질 이상 의자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항상 보람이 되는 마무리가 되고는 하였다.

작가 신봉철과의 대화가 그랬다. 그의 작업은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인데, 지난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에게 스스로 완성도 있는 작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료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한다. 실제로 그의 작업실에서 그가 보여줬던 다양한 샘플들은 그가 하나의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 자신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끝까지 해결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자세는 현재 그가 뮌헨에서 올 한해 성공적인 한해를 보낼 수 있었는지 이해 할 수 있었다.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기한에 맞춰 적당한 그림을 그려내는 작가가 아닌, 기한을 연장하여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 책임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파고드는 그의 집요함은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사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시 한 번 쓰이는 순간, 말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어휘나 어감에서 오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러한 미숙한 부분을 스스로 줄이고자, 작가 신봉철과의 작업은 더 많은 만남을 필요로 하였고, 작은 차이에서 오는 전달력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사실, 나 스스로에게 개인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Stefanie Staby씨와 Seven Elohim과의 인터뷰다. 계획 했던 부분과 달리 인터뷰과정에서 지연되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사실 이 부분에



The Echo of Light 전시장 풍경, Seven Elohim in Munich



학교 작업실에서 작품 배치를 하는 작가 신봉철

서 고마운 것이, 이들이 보여줬던 인터뷰에 임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 인터뷰를 준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거절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거절이 되었을 경우 다음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기에 이 생각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 나 스스로 또한 이해하려면 많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Stefanie Staby, 그리고 Seven Elohim의 Florian Dressler, Mela Gruber씨가 제공했던 편안한 분위기는 사실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

해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많은 예를 들어 설명했던 부분은 다음 기사에서 계속 될 예정이다.

해외 건축 동향이라는 타이틀 아래 독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향을 사실 지면 두 장에 담아 전달하기란 쉬운 방법은 아니다. 한국에서 보여지는 변화만큼ダイナミック한 경향을 띠지 않는 독일 건축의 특성상,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내 자신이 그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올 한해는 나에게 그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이 사실 필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나의 편협한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자주 있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2015년이 어느덧 11월 이제 한 달 뒤면 2016년이 된다. 매년 기사를 준비하고 두 달에 나눠서 마감을 하다 보니 때로는 시간과 계절이 맞지 않는 기사도 있었고 그러다보니, 좀 더 부지런하게 기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한번쯤, 멈추고 돌아봐야할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시기와 때가 맞는 기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글을 또한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해에는 또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기사를 준비하게 될지 설레임도 있다. 다음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 「르네상스계획」에 의한 새로운 단지재생모델- 타마무스비테라스(たまむすびテラス) 프로젝트

New Model of Housing Regeneration based on  
'Renaissance Plan'-Tama Musubi Terrace Project

글. 송준환 Song, Jun-hwan

야마구치국립대학 대학원이공계연구과 건축디자인공학분야 조교

일본은 195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금의 도시재생기구 UR의 전신인 일본주택공단(1955)이 중심이 되어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었고, 1968년에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달성하였다. 약 30~40년이 지난 현재, 방대한 양의 기존의 스톡을 어떻게 활용·재생해 나갈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 이에 도시재생기구 UR에서는 새로운 수법의 단지재생모델의 다각도로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인「르네상스 계획」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르네상스 계획」란, 임대주택의 단순한 재건축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단지만들기의 관점으로 기존 주동의 유효활용을 위한 실험적 시도를 의미한다. 본 계획은 크게 ①주동단위의 리모델링 기술개발과 ②주동 르네상스 사업의 2가지로 분류되는데, ①에는 단지의 노후화와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주민 고령화에 대응하여 계단실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베리어 프리(Barrier-free)화 계획, 그리고 현대의 생활변화에 대응하는 내장 및 설비의 구축, 경관을 고려한 파사드 계획 등이 실시되고 있다.

반면, ②는 민간의 창의적 방안을 도입하여 단지 재생을 시도하는 파일럿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①은 물리적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해, ②는 소프트적 수법의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재생수법이라 볼 수 있다.

타마무스비테라스(たまむすびテラス) 프로젝트는 상기의 ②주동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 지역명인 타마(多摩)와 '서로를 잇다'라는 의미의 무스비(結び)를 조합하여, "타마지역에 위치한 본 단지를 테라스를 통해 서로를 잇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프로젝트이다. 본 단지는 도쿄 도심의 신주쿠역에서 전철로 약 3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는 교외 베드타운으로서 도쿄도 히노(日野)시의 토요다(豊田)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한다.



리엔토 타마다이라



AURA243 타마다이라의 숲

### ■ 타마무스비테라스 프로젝트의 추진개요

일본주택공단에 의해서 1958년에 오픈한 (구)타마다이라(多摩平) 단지를 재생하는데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을 실시하였고, 선정된 3 민간 사업자에 의해 기존 주동을 활용·재생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3민간사업자가 도시재생기구 UR과 15년에서 20년간 정기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서브 리스사업(sublease)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 타마다이라단지는 10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했으나, 5동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철거를 한 상태이다.

2010년에 사업자 모집에 의해 선정된 3개의 민간사업자(토덴부동산(東電不動産), 타나베 물산(たなべ物産), 커뮤니티넷(コミュニティネット))은 각각 「단지형 쉐어하우스 : 리엔토 타마다이라(りえんと多摩平)」 「텃밭을 겸비한 임대주택 : AURA243 타마다이라의 숲(多摩平の森)」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ゆいまーる多摩平の森)」의 특징적인 제안을 실시하였고,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순차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져 2011년 10월22일에 최종적으로 전체 단지를 오픈하였다.

### ■ 단지형 쉐어하우스 : 리엔토 타마다이라(りえんと多摩平)

기존의 3K의 주호(43㎡)를 3개의 개별실과 하나의 공유공간으로 재조합하여, 3인 1유닛으로 함께 사는 쉐어 하우스를 계획하였고, 2동 합계 142실을 임대하고 있는데, 약 66%가 대학생 기숙사로 재활용되고 있다. 임대료는 1실당 약 5만 엔으로 주변의 같은 크기 주택의 약 절반 값으로 책정되고 있다.

건물의 1층에는 공용 라운지를 설치하여, 외부의 녹지공간으로 개방되어 있고, 서로 다른 형태의 테라스를 계획하여 특색있는 공용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개별 주호에는 부엌과 거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전원이 공유라운지를 거실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공유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 ■ 텃밭을 겸비한 임대주택 : AURA243 타마다이라의 숲 (多摩平の森)

AURA는 ‘숲의 요정’이란 의미로, 243은 예전의 주동번호를 의미인데, 본 단지의 최대 특징은 공동 텃밭과 작은 창고가 겸비된 정원 임대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임대형 정원은 덴마크의 도시거주에 근간이 되고 있는 관습으로서 이를 본 단지에서 실현하고 있다. 기존의 3K주호를 1LDK로 변경하여, 도쿄 도심부에 직장을 지니고, 자연환경 속에서 커뮤니티활동을 원하는 2명+α(어린이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월임대료는 약 9만 엔 정도이고, 개인정원이 있는 1층부는 약 11만 엔을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콜로니 가든(Koloni-Garden)이라고 불리는 임대형 텃밭(9구획)으로, 30㎡의 텃밭(월7,875엔)에서 작은 창고를 겸비한 50㎡의 텃밭(월18,900엔)이 구비되어 있어, 살고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주민들도 신청을 통하여 임대가능하다. 이외에도 히다마리 팜(=양지바른 농지)이라는 텃밭(48구획)이 존재하는데 1구획 당 약8㎡로서 서비스비 포함<sup>2)</sup>하여 월7,500엔에 이용가능하다.

### ■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 유이마루 타마다이라의 숲 (ゆいまーる多摩平の森)

본 주동은 「최후까지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테마로 유이마루(ゆいまーる)는 오키나와(沖縄)의 단어로 “서로 돕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호의 재건축을 통해 단열재 보강 및 휠체어를 배려한 평면계획을 실현함과 동시에 고령자를 위한 긴급통신설비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서축으로 세워져 있는 주동을 남북축으로 잇는 형태의 소규모 다기능 노인보호시설동과 집회실동을 증축하여, 종래의 단지의 평행배치의 단조로움에 직교한 저층 건물 통해

1) 작은 창고가 있는 정원을 갖춘 주택형태를 의미하는데, 덴마크어로 콜로니헤브(Kolonihave)라 불리고 있다.

2) 주4회 텃밭 스텝이 와서 각종 식물배양의 조언을 해주고 장화, 장갑, 농기구 등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복장으로 와도 작업이 가능하다.



텃밭 주민활동 모습



저층부 공용공간 외부 테라스



증축한 커뮤니티 시설



클로니 가든



AURA 하우스



식당으로 활용되는 집회동 시설

새로운 풍경을 창출하고 있다, 집회실동은 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동과는 별동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이곳은 식당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고령자만 있는 단지와는 달리 옆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는 주동에서 식사를 하러 많이 찾아와 젊은이와 고령자가 함께 교류하는 장소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기존의 방대한 양의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어떻게 재활용 또는 재생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국가적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향후 논의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株式会社リビタ, 株式会社ブルスタジオ, 株式会社プラスニューオフィス, 有限会社オンサイト計画設計事務所, たまむすびテラス : 리엔と多摩平, AURA243多摩平의 森, ゆいまゝ多摩平의 森 (しあわせな建築 第23回 BELCA賞ベストリフォーム部門受賞建築物紹介), BELCA news 26(150), pp.78-83, 2015.

2.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 : <http://www.ur-net.go.jp/rebuild/rn2/>

# 건축사윤리의 중요성과 위반에 대한 책임

Importance of Registered  
Architects ethics and responsibility for breach

글. 김주덕\_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1. 건축사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의 윤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조윤리다. 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판사 또는 검사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법개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사나 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하는 경우,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여검사가 남자변호사와 연애를 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받는 경우, 판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검사가 노상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법조윤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자질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소양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게 된다.

건축사도 마찬가지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이 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돈만 벌기 위해서 이중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으면 안 된다. 설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인명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정당한 보수 이외의 돈을 받고 업무수행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 다른 건축사가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 등에는 건축사윤리를 위반한 것이 된다.

건축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단순히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고, 일반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어느 분야건 전문직업인은 나름대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면 짧은 기간에 돈을 벌수는 있어도, 시간이 가면 악덕변호사, 악덕의사, 악덕건축사로 평판이 나게 된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잘못하면 협회의 징계를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심지어는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형사 처분을 받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업인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사업에만 매달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나아가다가 큰코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건축사가 윤리규범을 위반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II. 건축사윤리는 왜 지켜져야 하는가?

불과 몇 달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의 건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대행건축사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상당 수 적발되어 많은 건축사들이 형사 입건되었다. 형사입건이라 함은 징계사건이나 민사사건과 달라서 피의자 신분이 되며, 처벌받은 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많은 건축공무원과 업무대행건축사가 뇌물수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공용서류손상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물론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형법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절차가 따를 수 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징계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건축공무원과 건축사는 법과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고 불법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 것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죄나 불법행위는 대체로 직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저질러진다. 근본적인 원인은 직업윤리를 결여하고, 오로지 돈이나 명예만 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이다.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 있다. 건축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단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등록을 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축사협회, 시도건축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건축사는 매우 복잡다기한 일반 법령 이외에도 건축

사에 적용되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많은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한 정관, 기타 규정, 그리고 윤리규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 이러한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등의 대형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를 잘못해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축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건축사 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다른 건축사의 일감을 비윤리적으로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고, 영업을 위하여 이중으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건축사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하기도 하고, 다른 건축사가 다 해놓은 설계를 그대로 이용하여 마무리를 한 건축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 설계자로 등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도에 지방건축사회 두 곳에서 소속 회원에 대한 내부징계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신청사건이 접수되었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자문변호사로 입회하여 재심사건처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건축사윤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왜 건축사윤리가 중요한가, 왜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의 고취와 아울러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 III. 건축사윤리의 개념에 관하여

건축사윤리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윤리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윤리는 도덕과는 다른 개념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G. Radbruch는 도덕이라는 개념은 가치개념(Wertbegriff)에 가까운 개념이며, 이에 반하여 윤리라는 개념은 도덕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현실과 관련된 문화개념(Kulturbegriff)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선을 지향하는 도덕심이 있다. 이러한 도덕심은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이나 종교 또는 직업집단을 기준으로 한 윤리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축사윤리라 함은, 일반적인 도덕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인이 도덕적 선,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한된 범위에서의 기준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윤리는 건축사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사회적 사명에 따라 그 방향과 기준이 특정되며,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다.

건축사는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 독점성, 전문성, 신뢰성을 지닌다. 건축사윤리는 의료윤리, 법조윤

리와 함께 전문직윤리의 일종이다. 전문직은 일반직업과 달라서 자율적인 직업단체를 형성하고 고도의 전문성에 기하여 독특한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의 수행을 독점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하는 서비스 질의 확보, 윤리기준의 유지에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라 함은,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따른 행위규범을 정하여 개개의 건축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지침 및 한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건축사로서의 이상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자질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윤리는 윤리규범 중에서도 실정적인 사회규범으로 설정되어 타율적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직업집단 내에서는 자치적으로 규범의 정립 강제가 이루어진다.

#### IV. 건축사의 윤리규약은 무엇인가?

건축사윤리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윤리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조는 협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이라는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6조에는 협회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회원은 본인에게 위탁된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회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③회원은 의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공익에 비추어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임을 거부한다. ④회원은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⑤회원은 설계 감리 등 의뢰인의 업무의뢰에 따라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 조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건축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회원은 다른 회원과 의뢰인 사이에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탁받도록 의뢰인에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회원은 자기에게 의뢰된 업무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용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⑨회원은 건축재료 등 건축사업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⑩회원은 사이버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 욕설 비방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⑪회원은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본 윤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⑬회원은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관 제10조의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는 윤리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②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③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④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⑤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⑥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입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⑦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⑧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절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 V. 윤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건축사는 건축사윤리규약과 윤리선언문을 준수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가진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관 이외에 협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회나 건축계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①주의 ②경고 ③권리정지 ④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제명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제명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처분보다 중하지 아니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A건축사회는 B건축사와 C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윤리규정 위반이며 건축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 및 A건축사회 회칙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건축사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업

무대행자 지정해제 여부도 요청하였다. A건축사회는 이들 건축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A건축사회는 위 건축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회원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제명 처분을 받은 B는 결정에 승복하였으나, C건축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VI.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건축사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①자격등록취소 ②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견책 등이 있다. 다만, ①항이나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때 반드시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VII. 정도를 걷는 건축사

날이 갈수록 건축사업계는 빈익빈부인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건축사로서는 정도대로 사업을 영위해서는 경쟁력이 적어지고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윤리나 규범을 무시하면서 설계·감리 수주를 하고 업무를 수행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법집행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협회에서도 자체적인 윤리규범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원리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 순간에 수십 년 공든 탑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국회의원이거나 장관도 뇌물로 한 순간에 추락하고, 악덕으로 몰리면 변호사나 의사, 건축사도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차라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건축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글. 김홍기 Kim, Hong-ki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간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롬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5. 루이스 칸과 김벨미술관 / 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6.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놀로지 미학의 배후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8. 요셉 호프만과 스토클렛주택 / 총체예술의 원류
9. 호세 루이스 세르투와 매그 파운데이션 / 건축의 낭만성
10. 반 뒤스버그와 미스 / 러시아 댄서에 매혹된 근대
11. 인젤 홈브로이히와 랑엔미술관 / 폐허 속에 꽃핀 예술의 공동체
12.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 색채와 음악, 공감각의 배후

## 7

디아스포라의 유산

##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

Daniel Libeskind and Felix Nussbaum Haus



그림 1)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 독일 오스나브뤼크

쇼펜하우어는 높은 수준의 예술일수록 실용성과 무관하다고 말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예술로 건축을 꼽는 반면 실용성과 무관한 음악을 예술의 최고봉으로 꼽았다. 음악은 ‘정신의 목욕’이라 할 정도로 감흥의 영역이 넓고 크다는 것이다. 칸딘스키가 음악을 부러워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음표의 높낮이만으로도 음악은 환호를 자아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반면, 회화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불만이였다. 그렇다고 그림이 정신적 작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회화 역시 시대를 증언하거나 역사를 그려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 태생 유대인 화가 펠릭스 누스바움(Felix Nussbaum)의 자화상에서 그런 울림을 목도하게 된다. 자신의 성과 이름, 얼굴 사진이 붙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손에 쥐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화가의 자화상 속에는 시대

를 증언하는 깊은 아픔이 존재한다. 겁먹은 눈동자, 긴장된 입술 근육, 치켜세운 외투 깃은 극심한 두려움을 말해준다. 디아스포라 화가로 살다간 한 화가의 아픔과 고난을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건축으로 노래하고자 했다. 건축을 시대를 증언하는 기억의 매개체로 인식했다.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을 통진하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적 울림, 어떤 울림인지 그 속살을 드러내 보자.

## 두 명의 디아스포라 예술가

난민, 무국적자, 망명자, 홀로코스트를 떠올리는 디아스포라(Diaspora)는 ‘넘어서’라는 뜻의 ‘dia’와 ‘씨뿌리다’라는 뜻의 ‘speiro’가 합성된 그리스어로, 한자어로 옮기면 ‘흩어져 여기 저기 산재한다’는 의미의 이산(離散)으로 표기된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신명기 28:25의 추방에 대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진 역사적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어원은 흩어져서 난민처럼 살아가는 유대인을 지칭하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이산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상적,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낙인찍혀 태어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이산의 아픔을 겪는 유랑자 모두를 뜻한다.

20세기의 디아스포라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폴란드 등 서부유럽에서 대거 발생했다. 독일 제3 제국이 들어서면서 많은 건축사와 음악가, 화가들이 독일을 등져야만 했고, 유대인들은 대학살을 피해 디아스포라가 되어 떠돌아야만 했다. 베를린 유대인 미술관과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을 설계해 세계적인 건축사의 반열에 오른 다니엘 리베스킨트 역시 디아스포라의 후손으로, 그는 유대인 대학살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폴란드 출신의 부모 밑에서 1946년 태어났다. 폴란드에서 구소련으로, 구소련에서 다시 폴란드로, 거기서 이스라

그림 2, 3) 1998년 미술관 개막식 날, 펠릭스 누스바움의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다니엘 리베스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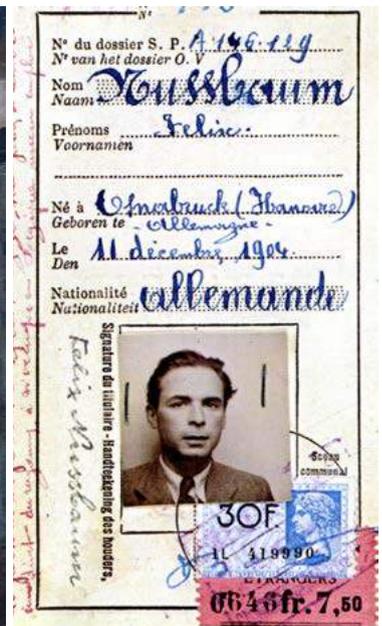
엘로 끊임없이 정착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의 가족은 1950년대 말 약속의 땅 뉴욕에 등지를 틀었다. 리베스킨트 집안의 역사에는 유대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투영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무국적자가 되어 로마와 파리와 브뤼셀을 전전하다 체포되어 아우슈비츠에서 사망한 이 글의 주인공 펠릭스 누스바움 역시 디아스포라의 전형이다. 그의 그림은 사후 50년이 지나, 그를 추모하는 미술관이 건립되면서 빛을 보게 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을 설계하면서 펍박과 냉대 속에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화가의 삶의 궤적을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미술관 2층에 전시돼 있는 누스바움의 자화상에 대해 리베스킨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펠릭스 누스바움의 자화상을 한번 보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공포에 찬 눈과 마주친다. 독일의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입상, 로마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촉망받는 화가였던 그는 유대인이었다. 죽기 직전 브뤼셀의 손바닥만 한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면서 완성해 낸 그의 자화상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학살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림 4) 막다른 골목에서 유대인 신분증을 들고 있는 누스바움 자화상, 그림 5) 벨기에 정부가 발행한 펠릭스 누스바움의 신분증, 6개월마다 갱신해야 했다.



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던 그는 그림을 그리다 송진과 물감냄새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이웃이 밀고하여 계슈타포에 체포되고 만다. 아내 펠카 플라테크와 함께 아우슈비츠행 기차에 오르면서 그의 방랑은 끝났고, 누스바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의 작품은 서명이 지워진 채 무명화가의 그림으로 팔려나갔다. 나는 그런 누스바움의 비극적 삶을 건축으로 노래하고자 했다.”

### 디아스포라 화가 펠릭스 누스바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오스나브뤼크에는 개략 600여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전쟁 후에는 고작 여섯 명만이 존재했다. 여섯 명마저도 배우자가 ‘아리아인’이었기에 수용소 이송이 미루어져 오다 종전을 맞았다 하니 실상이 얼마나 참혹했나를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유대인 대부분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가스실에서 삶을 마감했다. 누스바움도 그의 부모도 그의 형도 결코 살아남지 못했다. 펠릭스 누스바움은 1904년 12월 11일 독일의 전통적인 가톨릭 도시 오스나브뤼크에서 철물상을 운영한 아버지 필립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오스나브뤼크의 고급 주택가 슈로스가의 주택을 구입하였을 정도로 아버지는 성공한 유대인이었다. 열여덟 살에 접어든 1922년 누스바움은 미술 공부를 위해 함부르크의 아트 앤드 크래프트 학교에 진학해 1년간 장식예술 공부를 한다. 그러나 실용예술 보다는 작가정신에 불타는 배고픈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베를린으로 향했다. 1924년 그 곳에서 평생 반려자가 되는 폴란드 출신의 여성화가 펠카 플라테크(Felka Platek)를 만나 동거에 들어간다. 바르샤바 계토 출신인 펠카는 다른 많은 폴란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 탄압을 피해 1920년대 초반 베를린으로 흘러들어 왔다. 고흐와 데 키리코의 화풍을 선호했던 누스바움은 1931년 <멋진 광장>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베를린 분리와 전시회에 출품, 호평을 받으면서 누스바움의 이름이 독일 화단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1932년 10월 누스바움은 독일 예술 아카데미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플라테크와 함께 로마로 떠난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였다. 그가 베를린 스튜디오에 두고 온 작품 150여 작품이 나치 청년당원에 의해 불타는 사건이 벌어졌을 정도로 독일의 문화정책은 냉각돼 갔다. 1933년 히틀러에 의해 독일예술 아카데미가 해체돼 버리면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자 로마의 빌라 마시모에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던 그들은 이탈리아에서도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두 사람이 프랑스를 거쳐 벨기에에 도착한 것은 1935년 2월. 서구의 모든 나라가 독일에서 흘러나오는 유대인 난민에게 국경을 닫고 있었지만 벨기에만은

열려있었다. 하지만 체제기간이 무제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체제기간은 한번에 6개월로 제한됐고, 허가를 갱신 받으려면 까다로운 수속을 밟아야만 했다. 아르시메드가 22번지에 스튜디오를 마련한 그들은 1937년에야 비로소 결혼식을 올렸다. 오스나브뤼크 유대인 공동체의 상징인 시너고그가 나치에 의해 1938년 11월 2일 밤 화염에 휩싸였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독일 내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달하자 누스바움의 부모 또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1940년 봄 독일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을 넘었고, 그 해 4월 28일 벨기에 국왕은 독일군에게 전격 항복한다. 독일군이 침공하기 전 벨기에의 유대인 인구는 9만여 명으로, 그 대다수가 벨기에 국적을 갖지 못한 이주자였고 그 가운데 3만 명은 독일에서 흘러들어 온 난민이었다. 벨기에와 프랑스 북부를 관할한 독일사령부는 1942년 5월 28일, 유대인에게 다윗의 별을 달도록 법령을 선포했다. 남은 것은 벨기에에서 유대인을 내쫓는 일이었다. 1942년 8월 4일 벨기에에서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최초의 이송열차가 출발했다. 다락방에서 아내 펠카와 은신처에 숨어살며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누스바움은 자신이 죽더라도 그림은 남겨야겠다는 일념에 그동안 그려던 전 작품을 알고 지내던 치과의사 그로스펠드에게 맡겼다. 그림을 맡기면서 “내가 사멸하더라도 내 그림만은 죽이지 말아 달라”(If I perish, do not let my paintings die)고 부탁한다. 그의 그림은 다락방에 보관되기도 했고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되기도 했다. 유대인 학살의 증거라도 남기려는 듯 죽음의 손길이 다가오는 와중에도 누스바움은 그림 그리는 일을 계속했다.

물감 냄새가 새 나간 걸까? 밀고자가 있었다. 다락방과 지하방에 숨어살던 그는 브뤼셀의 해방을 한 달 앞둔 1944년 7월 20일 아내 펠카와 함께 체포된다. 누스바움 부부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것은 8월 2일.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스실로 끌려갔다. 누스바움의 부모와 형제 또한 암스테르담에서 체포되어 죽음의 캠프로 보내졌다. 펠릭스의 친척 가운데 네덜란드 남부에 숨어 지내던 사촌 모세스 누스바움(Moses Nussbaum)자매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전쟁이 끝나자 모세스는 이스라엘로 건너가 그 곳에 새로운 삶을 마련했다. 1946년 1월 29일 펠릭스 누스바움과 펠카 플라테크의 이름의 벨기에 외국인 등록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됐고, 주인 잃은 펠릭스 누스바움의 그림만이 무명작가의 작품으로 브뤼셀 주변을 나뒀군다.

## 모제스 누스바움, 누가 펠릭스 누스바움을 기억하는가?

펠릭스 누스바움이 남긴 미술작품이 생명을 찾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누스바움의 미술작품이 대량으로 남아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늘날 170여점에 달하는 펠릭스 누스바움의 작품이 한군데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펠릭스 사촌 여동생인 모제스 누스바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모제스는 펠릭스가 체포되기 전 벨기에의 치과의사 그로스 필스에게 작품 보관을 의뢰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그를 찾아가 작품을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지만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면 작품 인도를 완강히 거절했다. 9년이란 오랜 기간의 투쟁 끝에 벨기에 법정은 모제스 누스바움의 소청을 받아들였다. 펠릭스가 그린 100여 작품이 유족의 손으로 되돌아 올수 있게 된 것이다. 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보관상태가 좋지 않았다. 오염이 됐고 손상되기도 했다. 모제스 누스바움의 할 일은 화가 펠릭스 누스바움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었다. 자신은 사멸할지라도 작품만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실현시키는 일이었다. 모제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펠릭스 누스바움이 위대한 화가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스바움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급한 탓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 역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큐레이터가 펠릭스 누스바움의 존재를 알고 있는 곳은 그가 태어난 오스나브뤼크뿐이라며 그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나브뤼크 문화역사박물관 관장 발터 보르케르스의 도움으로 1971년 최초로 펠릭스 누스바움의 회고전이 오스나브뤼크 도미니크 교회 홀에서 열렸다. 독일 지역에서 홀로코스트는 더 이상 터부시되는 주제는 아니었다. 개막식에 시장이 참석한 오스나브뤼크 시장은 독일 전역에서 희생당했던 유대인을 기리는 연설을 했다. 누스바움의 그림은 그림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홀로코스트 작가의 숨결이 녹아든 살아있는 자료라는 소감을 덧붙였다. 전시회를 본 많은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지역신문 노이에오스나브뤼커 자이퉁은 <누가 펠릭스 누스바움을 기억하는가?>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 기사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누스바움의 이름은 유럽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누스바움의 작품이 모이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벨기에의 예술품 수집가 빌리 스트라에트가 누스바움이 1942년부터 1944년 사이에 그린 여덟 작품을 기증했다. 체포되기 직전 브뤼셀의 지하 은신처에서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빌리 스트라에트는 펠릭스 누스바움



그림 6) 기존 문화역사박물관과 연계되어 신축된 펠릭스 누스비움 미술관

이 제네랄그라트리 23번지에 위치한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기거하였으며, 집세와 식비 대신 그림을 주었다고 밝혔다.

1980년대 들어 오스나브뤼크 시는 누스바움을 지역이 나온 예술가로 추앙했고, 누스바움에게는 ‘오스나브뤼크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1982년 ‘누스바움의 인생과 작품세계’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하를렘의 프란츠 할스 미술관과 브뤼셀의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잇달아 개최됐다. 1985년에는 뉴욕 유대인미술관에서 누스바움의 회고전이 열렸고, 뉴욕 타임즈와 아트 인 아메리카를 비롯한 주요 저널지에 회고전 내용이 특집으로 실리면서 누스바움의 존재가 미대륙에 알려졌다. 1988년에는 독일의 베를린과 뒤스부르크에서도 잇달아 회고전이 열리면서 고뇌의 삶을 살고 간 홀로코스트 화가의 작품에 경의를 표했다. 누스바움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등하자 오스나브뤼크 문화역사박물관은 2개의 전시실을 누스바움의 작품을 전시하는 상설공간으로 배정했다. 170여 작품 가운데 70여 작품 밖에 전시할 수 없었던 오스나브뤼크 시 당국은 1991년 누스바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용 미술관을 문화역사박물관 옆에 별관 형식으로 건립하기로 결정한다. 건립예산이 확보되는 1995년 현상설계에 붙여졌고, 300여개 출품작 가운데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1996년 봄 130만 마르크의 비용으로 착공되어 베를린 유대인 미술관 건물이 착공되기 직전인 1997년 완공되었다.

### 출구 없는 미술관, 트라우마와 잠재성의 건축

앞서 언급했듯이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양친 모두 유대인 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홀로코스트의 후손이다. 홀로코스트를 직접 격지 않았지만 생존자의 자식으로 태어났기에 그의 작품에는 가족사가 은연중에 투영되어 있다. 감정을 배제된 무미건조한 건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리베스킨트는 다른 어느 건축사보다도 땅의 지정학적인 속성이라든지 프로젝트에 내재된 기억 또는 트라우마에 깊은 관심을 쏟아 왔다. 그를 세계적인 건축사의 반열에 올려놓은 베를린 유대인 미술관과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을 봐도 그렇다. 9.11 테러로 붕괴된 부지에 계획된 세계무역센터 현상설계 당선작 ‘기억의 기초’ 역시 트라우마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에 반영된 트라우마는 단발성 재앙의 치유 가능한 트라우마이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불러온 줌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집단적 트라우마이며,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트라우마이다. 그러한 특질이 가장 명료하게 표출된 것은 단연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이다. 리베스킨트가 누스바움에 대해 관심을 쏟은 것은 현상설계 훨씬 이전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베를린 유대인 미술관 현상설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리베스킨트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베를린에 정착한 시기는 1989년이었다. 홀로코스트의 진원지인 베를린 브레겐츠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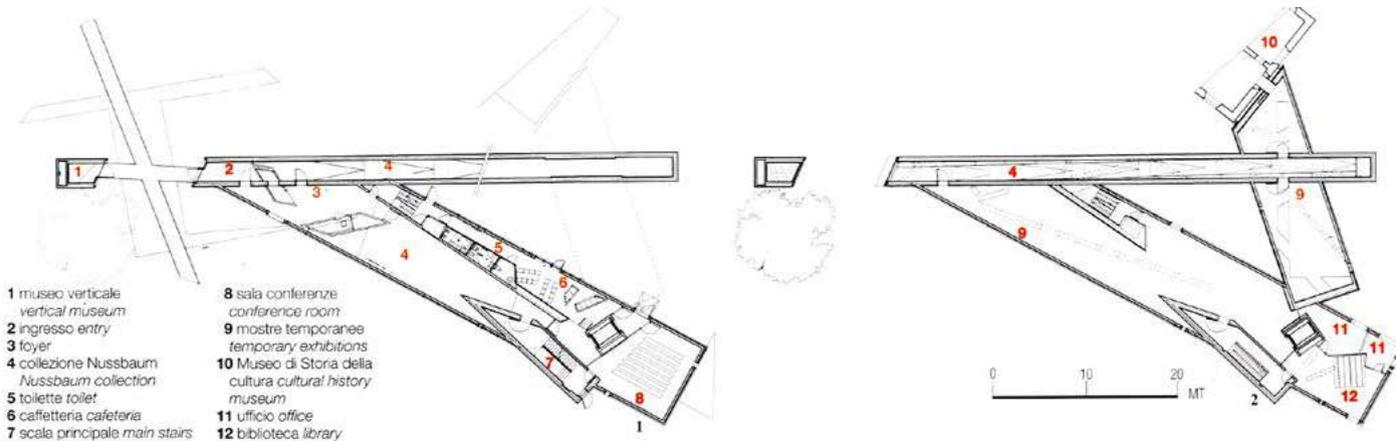


그림 7)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 평면도

1. 버티컬 뮤지엄(Vertical Museum) 2. 입구 3. 로비 4. 누스바움 컬렉션 전시실 5. 화장실 6. 카페테리아 7. 주계단 8. 컨퍼런스 룸 9. 기획전시실 10. 문화역사박물관 11. 도서관

에 거처를 정한 후,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거닐던 중 한 빌딩에 붙어있는 명판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1944년 타계한 화가 누스바움이 살았던 곳이라고 적혀있었다. 펠릭스 누스바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집에 들어와 1976년에 발행된 유대백과사전을 들춰보지만 그의 이름은 올라있지 않았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누스바움을 다시 떠올린 것은 1995년 현상 설계가 공포되었을 때였다. 이 당시에는 무명에서 벗어나 누스바움의 이름이 유대백과사전에 등록돼 있었고, 독일 사회에서는 꽤나 알려져 있었다. 설계안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펠릭스 누스바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만 했던 그는 누스바움의 연대기를 뒤적이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고 간 작가의 생애를 건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 # 축 - 작가의 연대기

오스나브뤼크 문화역사 박물관의 별관 형식으로 증축된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의 건축 형태는 축에 의해서 결정된다. 리베스킨트는 지형학적 기준을 설정해 건물의 축을 설정해 나갔다. 첫 번째 축은 베를린을, 두 번째 축은 로마를, 세 번째 축은 함부르크를 향하도록 했다. 세 도시 모두 누스바움이 미술활동을 했던 곳으로 이 세 개의 축은 삼각형을 이룬다. 네 번째 축은 죽임을 당했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쪽을 향해 있다. 의미를 함축한 서로 다른 사선 축이 만들어내는 추상의 기하학은 조성을 파괴한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처럼 긴장감이 서려있다.

### # 재료 - 건축의 노래

화가에게는 색이, 음악가에게는 소리가, 작가에게는 단어가 있듯이 3차원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건축사에게는 재료라는 도구가 있다. 돌과 금속, 콘크리트, 목재. 감정도 없고 말을 못하는 물질들이지만 건축사는 이 보잘 것 없는 재료를 이용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역사를 제시해야한다고 리베스킨트는 말한다. 실제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왜 건물이 세 개의 매스로 나누어져 있는지, 세 개의 매스가 왜 각기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고는 숙연해 한다. 베를린에서 미술활동을 하던 192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 이전까지 제작된 작품을 전시한 주전시실의 외부 마감은 따뜻한 분위기의 오크 목재를 사용한 반면, 누스바움이 브뤼셀 운둔 시절에 제작한 작품은 콘크리트로 마감된 비좁은 통로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이 통로는 지나면 금속 아연판으로 마감된 세 번째 매스와 만나게 되는데, 진행 순서에 따라 따뜻한 재료에서 차가운 재료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목재(Nussbaum Haus), 콘크리트(Nussbaum Corridor), 금속 아연판(Bridge) 순으로, 이것은 누스바움의 인생 궤적을 은유적으로 상징한 것이다.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젊은 시절은 목재로, 좁은 공간에 숨어서 그림을 그렸던 브뤼셀 시절은 둔중한 콘크리트로, 아우슈비츠에서 죽음에 직면해 있던 시절을 차가운 금속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림 8)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의 외관. 목재(주전시장)와 콘크리트(누스바움 길), 금속재를 사용하여 누스바움의 생애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 # 빛 - 존재의 의미

빛은 모든 것의 척도다. 절대적이고 수학적이고 물질적이고 영원하다. 밝은 빛은 환희를 뜻하고 희망을 상징하는 반면 칙칙한 빛은 우울을 표상한다. 펠릭스 누스바움의 삶 자체는 애초부터 회색빛이었다. 냉랭한 북유럽 가을 하늘의 찌푸린 회색하늘, 빛이 찾아들지 않는 캄캄한 지하 작업실, 좁은 틈사이로 유입되는 다락방의 빛, 누스바움에게 밝은 빛은 호사스럽고 생경한 것이었다. 과거는 빛이 바랜 미래와 같고 미래는 불확실하여 그저 별처럼 깜깜할 뿐이다. 누스바움의 막다른 골목은 빛이 없는 그런 길이다. 빛에 대한 사고는 거대한 높이의 천창으로부터 썩기형의 작은 빛이 실내로 파고드는 베를린 유대인 미술관에서 극적으로 실체화된다.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에서도 빛은 억압과 은둔과 속박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 # 통로- 출구 없는 누스바움의 길

폭 2미터 높이 11미터로 된 누스바움의 길은 하나의 전시공간이라기 보다는 어두컴컴한 대형터널이다. 이곳에는 누스바움이 게슈타포의 손에 끌려가기 직전 완성된 작품들이 벽면에 등성등성 걸려 있다. 비좁은 공간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이라도 하듯이 원근감이 제거된 그림들이다. 음산한 느낌을 표출하는 이 공간은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는 작은 방에서 미친 듯이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렸을 누스바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목상적 공간이다. 그림 그리는 것만이 시대의 암울함과 공포를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로 숙연해 진다.



그림 9) 폭 2미터의 좁은 통로로 구성된 전시장. '누스바움의 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전시장에는 1942년부터 1944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이 걸려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분히 건축사의 의도된 전략에서 표출된 것으로, 리베스킨트는 누스바움이 체포되기 직전에 그려진 작품들을 넓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한적하게 바라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동의 자유보다는 압박과 속박의 경험을 제공하는 통로를 만들 결심을 한다. 통로의 폭은 불과 2미터로 그려진다. 독일 측 관계자들은 설계 도면에서

2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통로를 발견하고는 이의를 제기했다. 공공장소의 통로를 이렇게 좁게 만들다니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관람에 목적을 둔 공공 공간은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논리였다. 그러나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누스바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좁고 불편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리베스킨트의 강변에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출구 없는 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이 그런 이유에서 붙여졌다. 이 미술관은 단순히 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닌 작가의 삶의 궤적을 이해하는 공간이었다.

### # 파괴적 기하학 - 낮섬의 미학

리베스킨트는 건축계에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과감히 틀을 벗어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상주의자이며 몽상가였던 아버지를 존경해 왔던 리베스킨트는 뭔가 세상을 바꿀만한 과감성이 갖든 건축을 몽상해 왔다. 미국의 비평가 헤럴드 볼룸이 훌륭한 책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낮선 느낌을 꼽았듯이, 훌륭한 건축 또한 낮선 느낌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낮선 것에 대한 취향은 쿠퍼유니온에서 건축을 배운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실험적 건축교육으로 유명한 쿠퍼유니온에서 그는 리처드 마이어와 피터 아이젠만에게 사사했다. 페이퍼 아키텍트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실험적인 건축을 즐긴 학장 존 헤이덕을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1968년 마이어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의 수습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을 보면 리베스킨트의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마이어의 사무실은 그가 설계한 건물처럼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고 조용했다. 수습생들이 책상에 줄지어 앉아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라는 책을 펴놓고 수평 수직에 충실한 마이어의 설계를 그대로 베끼고 있었다.

리베스킨트 역시 그들처럼 하루 종일 기계적인 작업을 하고는 다음 날 병가를 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창의성이 없는 기계적인 작업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형식을 원했다. 그 탓에 나이 선물이 될 때까지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다. 모더니스트의 중립적 상자를 싫어했던 그에게 좀처럼 건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베를린 유대인 미술관과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이 완공되는 1990년대는 그의 시대였다.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에 나타난 날카로운 선들과 파괴적인 기하학은 그를 해체주의 건축사의 리더로 만들었고, 대중들에게 진보적 건축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었다.



그림 10)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 전시실 내부

## 펠릭스 누스바움 컬렉션

펠릭스 누스바움의 그림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이전 인상파와 고흐의 화풍을 답습했던 시기로, 베를린 분리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화풍을 찾아 나선 과도기이다. 로마로 건너가는 1933년부터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1939년까지를 중기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데 키리코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40년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시기를 후기작품으로 볼 수 있다. 후기작품을 대표하는 두 작품을 소개하기로 한다.

### # 생시프리아엔 수용소의 자화상, 1940

1940년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했을 때 벨기에 당국은 나치에 찬동하는 독일인을 차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국 내에 있는 15세 이상의 독일 국적 남성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나치의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패스포트에 국적이 '독일'로 적혀있으면 망명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누스바움 역시 구속돼 남프랑스의 생시프리아엔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졌다. 수용소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 누스바움은 친구인 게오르크 마이어와 함께 탈주를 결행해 펠카가 기다리는 브뤼셀로 돌아왔다. 만약 이때 탈출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비시정권에 의해 독일에 송환되었을 것이다. 탈출한 후 그는 수용소 생활을 그림으로

그렸다. 비인간적인 식사, 부족한 물과 의료시설, 비좁은 숙소. 그는 우리가 경험한 것은 모두가 무서운 오류라고 외쳤다. 그림 속에는 그런 외침이 묻어 있다. 희망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 창백하고 우울한 색조는 1940년대 초반 그의 작품에 주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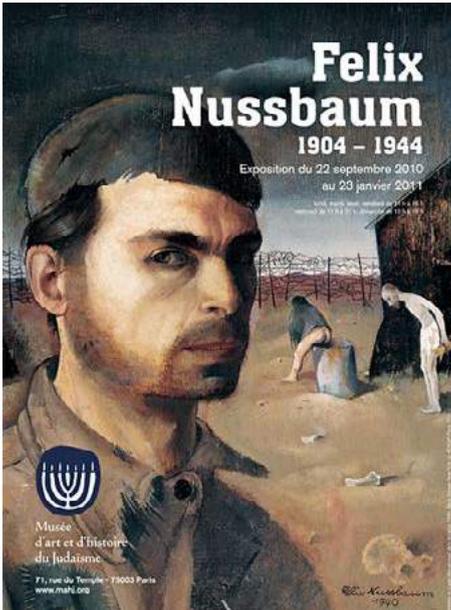


그림 11) 2010년 파리 유대인 미술관에서 개최된 펠릭스 누스바움 전시회 포스터. 생시프리앵 수용소의 열악한 모습을 담은 자화상(1940)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림 12) 펠릭스 누스바움이 1943년 12월 완성한 부부의 슬픔(Couple Grieving), 62x49cm

### # 부부의 슬픔, 1943

펠릭스 누스바움이 아우슈비츠로 가는 마지막 열차에 오르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완성된 ‘부부의 슬픔’. 조만간 닥쳐올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라도 있는 듯, 창백한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벽은 갈라져 있고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 세상은 그저 처연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백발로 변한 아내의 머리에 기댄 남자의 시선 속에는 존재를 강변할 어떠한 의지도, 자유를 외칠 어떤 여력도 감지되지 않는다. 누군가 말했듯이 남아있는 것은 창백한 아름다움뿐이다. 로버트 카파(Robert Capa)를 비롯한 포토저널리즘 사진작가들이 전쟁의 비극적 참상을 극적으로 표현하듯이 펠릭스 누스바움의 작품에는 극적인 리얼리티가 농밀하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가 직접 목도한 디아스포라의 참혹한 현장인 것이다.

## 후기 - 펠릭스 누스바움 가는 길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펠릭스 누스바움의 일대기와 작품을 자세히 서술한 텍스트가 필요했다. 다행히 아마존을 통해 뉴욕의 우드스톡사가 발행한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FELIX NUSSBAUM - Art in Exile>이라는 제목의 누스바움 작품집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 활동해 온 디아스포라 작가 서경식의 글이 도움이 됐다. 그는 ‘디아스포라 기행’ 및 ‘고뇌의 원근법’이라는 저서를 통해 펠릭스 누스바움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자서전 ‘낙천주의 예술가’ 또한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은 베를린 유대인 미술관보다 1년 앞선 1998년 완공되었다. 완공년도로 따지면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중 가장 앞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펠릭스 누스바움이 위치한 오스나브뤼크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인 도시로 1648년 5월 15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모여 30년 전쟁의 종결을 위한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도시 곳곳에 중세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인구는 16만 명 정도로, 남쪽으로 40km 지점에 뮌스터가 있고 남서쪽으로 90km 지점에 도르트문트가 위치해 있다. 오스나브뤼크 중앙역에서 로테르 스트라베(Lotter Straße)로 향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미술관에 도착할 수 있다. 입장료는 5유로. 월요일은 휴관. 11시부터 6시까지 개관한다. 2010년 7월 증축공사를 위해 휴관되었으나, 2011년 6월 재개관하였다. 증축공사 역시 디아스포라 건축사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맡았다. 췌기처럼 벌어진 벽 틈새로 비춰지는 빛은 브뤼셀 시가의 다락방에서 몰래 바깥을 내다보던 펠릭스 누스바움의 시선을 느끼게 한다.

그림 13) 2011년 증축된 펠릭스 누스바움 미술관 입구



## 전통온돌기술의 가치와 현대화, 산업화를 위한 제언

Value of traditional Ondol technology  
and Proposition for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글. 김준봉\_ Kim, June-bong · 건축사 / 한건 종합건축사사무소 · 북경공업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반을 맞아 새로운 문화융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핵심이 전통문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얘기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고유한 전통음악, 무용, 문양,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인물 등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정부가 온돌, 구들장, 황토방 등 친환경 건축기술 현대화 & 세계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고 일단 큰 틀만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한옥과 온돌을 연구하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여 이 글을 쓴다.

### 1. 전통 건축기술의 우수성

요즈음 국내에 한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과 더불어 한옥과 전통 온돌인 구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옥이 같은 중량목구조 계열인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주택과의 확실한 차이점은 바닥 난방시설인 온돌(구들)이다. 한옥의 구조 자체가 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구들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합리적 구조로 장마철의 습기는 구들 아래의 진흙이 흡수했다가 건조하면 방출해 방의 습도를 조절해 준다.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구들 고래가 막아주고 겨울에는 지열을 고래가 저장해주는 것이다. 전통 구들은 불을 지피지 않은 시간에도 축열된 열을 방바닥에서 방열시켜 난방을 하는 방법으로 고체축열식에 속한다. 또한 자재는 물리·화학적으로 안전한 자연 광물질이고 마모되어 못 쓰게 되는 법이 거의 없어 영구적이다.

과거 인간은 체온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천과 사우나 그리고 온돌을 이용했다. 그리고 현대에도 인간의 주거환경 중 온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조화 난방, 라지에이터 난방, 그리고 온돌난방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다. 온돌은 열의 기본 성능인 대류 전도 복사의 특징을 모두 이용하여 실내의 기온, 습도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준다. 서양은 주로 공기조화(空氣調和)나 라지에이터(Radiator)를 이용한 방법을 주로 발달시켜 왔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민족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복사난방인 온돌시스템(구들)을 이용하고 그 문화를 형성하였다. 공기를 데우는 공기난방방법 바닥이 더워진 공기가 위로 가는 현상으로 바닥을 따뜻하게 하기가 어렵지만 그에 비하여 온돌은 바닥을 먼저 데우는 복사난방 방법으로 발바닥 피부를 직접 접촉하는 난방이 특징이므로 건강에 유리한 주거환경인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여 인체의 면역성을 높여준다. 구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과학적 난방 설비이며, 동서양 의학에서 공히 인정되는 두 한족열(頭寒足熱)의 건강 조건과 습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습도조절 기능 및 통풍과 먼지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학 구조물이다. 그리고 바닥을 따뜻하게 함으로 실내에서 탈화(脫靴)를 유도하여 신발에 의한 외부 먼지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 보건위생에 있어 우월한 청결 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내 온도를 공기 난방에 비하여 낮게 유지하여도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실내 쾌적온열환경을 유지하여, 발열부분의 온도를 다른 난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저온난방방식으로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아파트문화의 유입에 따른 주택의 근대화와 서구화의 경향으로 인해 그간 수천 년간 발전 해오던 온돌 문화가 단절의 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온돌은 한국인의 전통 주거인 한옥에서는 마루와 함께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적 지위나 지역적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주거문화이다.<sup>1)</sup> 온돌은 적은 에너지원으로 많은 식구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속시켜온 한국의 좌식평상(坐式平床)문화에 적합한, 한국 고유의 난방방법이기도 하다.<sup>2)</sup>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환경문제를 보아도 연소된 연기와 열기운이 그대로 배출되는 소각로와는 달리 고래개자리과 굴뚝개자리 등을 통한 분진의 내부처리 기능 등이 있는 구들은 이미 환경 친화적인 과학이 적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열역학적 측면을 보아도 구들의 구조와 재료 등의 특성상 가장 낮은 열손실 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온수 파이프 난방 시스템보다도 훨씬 적

1) 강재철, 온돌문화전통의 지속과 병용에 관한 시론,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2010, p. 191-218.

2) 국제온돌학회, 2014, 온돌기술 문화유산등록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P.9, 국토교통부(연구책임자 김준봉)

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즉 온돌은 복사와 전도, 대류의 열전달 3요소를 모두 갖는 독특하고도 과학적인 난방방법이다.

## 2. 온돌 구들문화의 세계화 현대화 실행방안

먼저 온돌을 논하려면 온돌의 확실한 정의가 필요한데 바로 그 정의는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난방하는 시설’을 말한다.<sup>3)</sup> 이러한 온돌은 가열방식이나 열전달매체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다. 즉 전기나 불등으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있고 기름을 열원으로 하여 열매체인 물이나 공기 등을 가열하여 방바닥으로 보내는 간접방식이 있다. 결국 나무를 때든 석탄을 때든, 혹은 전기, 물, 가스등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방바닥을 따뜻하게 한다면 모름지기 온돌로 봐야 한다.

온돌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온돌(구들)의 구조, 유형, 재료, 공법에 사용되는 우리말 용어를 표준화하여 온돌의 보급과 학술연구에 있어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말 온돌 용어를 영어와 중국어 표준 표기법을 개발하여 온돌의 국제화에 다가서야 한다.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1. 온돌 용어 표준화 사업 → 우리말 용어의 표준화(통일화) 2. 온돌 용어 외국어 표기 표준화 사업 → 온돌 용어의 영문, 중문 표준 표기법 개발 3. 온돌 용어 사전 편찬 사업 → 온돌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한 사전 편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sup>4)</sup>

2007년에는 온돌 파이프와 관련한 4건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고 2008년 3월에는 한국이 제안한 7건의 온돌 관련 신규 국제표준안이 국제표준기구 기술위원회(ISO/TC) 회원국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었다. 그 표준안은 △온돌시스템 설계 기준 △온돌바닥 두께와 넓이 등에 따른 난방 용량 △온돌의 설치 운용 등 유지관리지침 등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한국이 제안한 온돌파이프 관련 기준 4건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온돌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온돌의 수요 축소와 전수 기술자의 사망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가 지원이 없는 전승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어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해 국가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외에서는 한국식 온돌시스템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온수순환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난방 개념

3) 사전에는 온돌은 화기(火氣)가 방 밑을 통과하여 방을 덥히는 장치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좌식생활을 하는 방바닥이면 온돌방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숙박시설에서 “온돌방을 드릴까요? 침대방을 드릴까요?” 하고 묻는 것처럼 바닥을 난방하면서 접촉난방 좌식생활을 하는 형태는 모두 온돌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4) 유우상, ‘온돌용어의 표준화와 국제화에 대한 연구’, 국제온돌학회 춘계세미나, 2008

인 피부접촉을 통한 전통온돌난방방식의 특징에 근거하기보다는 서구의 난방방식인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방식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3. 기대 가치와 산업효과

현대 가전시장에서 온돌산업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음으로 그 시장 규모가 크다. 그리고 그 규모는 지금까지 난방을 하지 않던 지역<sup>5)</sup>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온돌난방 시스템에 대한 인 증은 온돌을 사용할 때 느끼는 쾌적함의 기준, 온돌바닥의 두께와 넓이 등에 따른 난방용량, 온돌시스템의 설계기준, 온돌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성능, 온돌의 설치·운용 등 유지관리지침 및 건강성, 문화전통성 등에 관하여 바닥 난방시스템의 구성부품의 제품 적합성과 시험요건과 시공품질 적합성, 제조 및 시공시의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하여 그 품질 보증 요구(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를 수립하여 우리 온돌의 전통의 지속가능 특성을 계승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고품질의 온돌 시스템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하다.

그리고 조속히 우리의 전통온돌과 그에 파생된 기술과 문화를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온돌 중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세계만방에 공표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가브랜드 위상 때문에 독일, 핀란드, 일본 등에 비해 양질의 우수한 경쟁력 있는 각종 온돌관련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저평가 되고 있는 한국의 보일러 제품을 비롯한 토종 온돌제품들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돌관련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복합공종을 관장하는 시방서를 개발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온돌공사를 전문공사업으로 발전시켜 아래<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 받거나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괄적으로 책임 시공하는 체제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sup>6)</sup>

#### 다양한 현대온돌기술의 개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규제에 따른 이중바닥 혹은 뜬 바닥 공법이 필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전통온돌인 구들구조를 이용한 좀 더 발전적인 온돌난방 방법이 개발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구들고래에서 착안한 최근 개발된 뜬바닥을 통과하여 외기를 유입시키는 열

5) 온돌산업은 과거 난방을 하지 않던 겨울 최저기온이 섭씨 5도-15도 지역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6) 김준봉, 옥종호, 가정용보일러 역사를 통한 온돌시스템 공사수행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국제온돌학논문집 제8권, 2009



<그림1> 온돌공사의 전문건설업화

교환 온수온돌시스템은 좋은 개발사례이다. 그리고 서양의 벽난로기능을 차용한 벽난로형구들방 역시 현대 한옥에서 마루부분을 거실화하여 동절기에도 사용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이 된다. 단순히 하드웨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날로 늘어가는 오토캠

핑장에 노천구들 캠프장을 만들거나 전원주택의 한 편에 황토구들건강찜질방을 마련하여 민박형 펜션이나 사랑방을 꾸미는 것도 생각해 볼 사안이다. 또한 <표-1>이나 <그림2, 3>처럼 다양한 형태의 구들을 개발하고 ‘벽난로형 실내구들’이나 ‘가마솥보일러’를 겸용한 구들 등 현대에는 다양한 전통온돌을 선보일 수 있다.

온돌은 구들이고 구들은 온돌이다.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법은 재료나 방법이 달라도 모두 온돌이다. 불을 때는 아궁이나 보일러설비 그리고 열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고래구들장이나 온수관 전열선이나 발열판 마지막으로 열을 발산하는 장판이나 널마루 온돌마루 모두가 온돌이고 구들이다. 이 세부분이 모두 통합 관리되는 온돌시공기술이 필요하며 이렇게 될 때 한옥구들시공기술의 현대화 산업화가 기대된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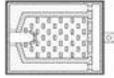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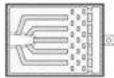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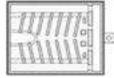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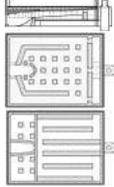


<그림3>

국가적으로 전통온돌 문화재 수리기능자 부분에서 전통온돌수리기능자자격이 시행되었기에 후속적으로 일반건축물부분의 현대구들(온돌)기술자와 기능자의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온돌박물과 온돌전시장 온돌체험장 등이 하루 속히 만들어지고 기술적으로 지방서와 도면의 표준화가 시급하며 현대에 맞는 성능기준과 시설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

6) 김준봉, 옥종호, 가정용보일러 역사를 통한 온돌시스템 공사수행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국제온돌학논문집 제8권, 2009

&lt;표-1&gt;현대적으로 시공 가능한 여러 구들 고래의 모습

종류	특징	형태
혼용고래 구들1	줄고래와 허튼고래 혼용 가쪽의 열기 흐름을 돕기 위해 줄고래가 사용되며 가운데 허튼고래를 사용해 열기를 분산 시킨다.	
혼용고래 구들2	줄고래와 허튼고래 혼용 특히 긴간방에 유용하다. 열기가 식으며 모여드는 특징이 있는데 끝에 줄고래 끝에 허튼 고래를 놓음으로 다시 분산 시킨다.	
원형허튼고래구들	원형방에 줄과 허튼 고래 혼용 열기를 가쪽으로 잘 흐르기 하기위해 줄고래를 사용하여 중간에는 허튼 고래로 분산시킨다.	
갈비고래 구들	열기를 지속적으로 방가 쪽으로 보낸다.	
굴절고래 구들	고래 벽이 굴절돼 있어 열기가 고래개자리까지 가는 거리를 연장시킨다.	
이중고래 구들	문재남 특허 구들 : 초기에 열기가 위층 고래에 흐른 후 식은 열기가 아래층 고래 속에 흐른 후 굴뚝으로 나간다. 아래층이 긴 내굴길이며 비교적 따뜻한 보온층을 형성한다.	

## &lt;참고문헌&gt;

1. 김준봉 리신호 오홍식 공저, 온돌 그 찬란한 구들문화, 청흥, 2006.
2. (재) 한국건자재시험 연구원, 온돌난방시스템 국제화 추세에 대응한 구성부품의 고기능성 확보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소개, 국제온돌학회 논문집 제8권, 2009
3. 김준봉·옥종호, 온돌과 구들의 용어 정의와 그 유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3권 2호, 2014. 04
4. 국제온돌학회, 온돌기술 문화유산등록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연구책임자 김준봉), 2014
5. 김준봉, 문재남, 김정태 공저, 온돌문화 구들 만들기, 청흥, 2012
6. 김준봉 외, 온돌과 구들문화, 어문학사, 2014

## 건축계 소식

### ‘2015 건축의 날’ 개최



한국건축단체연합 FIKA(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2015 건축의 날’ 행사가 10월 5일(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맞추어 ‘통일건축,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강연 및 토크쇼를 개최하며 북한의 도시와 건축의 실상, 통일시기에 요구되는 건축계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올해 ‘건축의 날’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공감대가 건축계에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미래성장 전략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유공자 대상 총 48명에게 훈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이날 전시에는 북한의 도시와 건축, 주거문제 등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각종 자료와 건축계가 그동안 대북 지원사업과 교류를 통해 북한지역에 건설된 각종 건축물을 사진, 도면,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제공하고 통일 건축과 관련한 토크쇼도 진행됐다.

###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와 건축사대회 준비 박차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가 10월 2일(금) 인천광역시청에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내년 인천에서 열리는 2016대한민국 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담을 갖고 그간 인천의 시장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근대건축물과 고품격 건축물,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상이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져 인천의 가치가 제고 되도록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에 인천시에서 개최될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세계 건축계가 주목하고 있는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축사마라톤동호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참가



건축사마라톤동호회가 지난 3일(금) 영동대로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건축사마라톤동호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 건축사축구대회



제11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회장기 건축사 축구대회가 10월 9일(금)부터 10일(토)까지 양일간 경남 창녕(부곡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됐다. 우승은 '부산 갈매기'가 차지했다.

### 2015년 하반기 전국 건축사 등반대회 열려



대한건축사 등산동호회(회장 이종호)가 주관하는 2015년 하반기 전국 건축사 등반대회가 지난 11월 14일(토) 대구 팔공산에서 있었다. 전국의 건축사 회원 및 가족 400여명이 대구 방짜유기박물관 주차장에 모여 지역별로 산행을 했으며, 식사와 함께 정기총회, 경품 추첨 등 뒤풀이 행사가 있었다. 2016년에는 본 동호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1월 중순경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등반하고 6월에 대문산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10월 8일(목)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600여 소속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창립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중·고생 건축사진공모전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석정훈)가 10월 13일(화)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중·고생 건축사진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진행됐다.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한마당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15 부산 국제건축문화제가 개최됐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행사기간 중 제20기 시민건축대학-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한마당을 진행했다.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제7회 대전건축문화제



제7회 대전건축문화제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광역시청 2층에서 개최됐다. 한국 전통 목조건축에 대한 학술포럼과 어린이 건축학교와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았다.

### 경기도건축사회, 2015 경기건축문화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5경기건축문화제가 경기도청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경기건축문화제는 경기도건축문화상, 경기학생 건축물 그리기 대회, 도시건축 사진공모전 출품작을 전시했다.

### 충청북도건축사회, 집수리 봉사활동



10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청주문화산업단지 내 상상마루 및 로비 등에서 2015충청북도건축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충북건축사회는 축제기간 중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도민들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를 만들고 있다.

### 충청남도건축사회, 2015 충남건축, 공공디자인문화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2015충남건축 공공디자인문화제가 개최됐다. 충남건축문화대전과 충남공공디자인전, 어린이 집그리기 등이 전시되고 충청남도 건축상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경상북도건축사회, 2015 경상북도건축대전



'전통과 미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경산시민회관에서 2015경상북도건축대전이 개최됐다. 우수한 건축공모 작품들을 시상하고 전시하며 경북 건축의 현재를 조망하는 시간이 됐다.

###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인수)는 10월30일~3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변산반도 내소사 및 대전 일원에서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개최된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됐으며, 30명의 신입사원을 비롯해 본사 및 현장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9.8km 내소사 산행을 통해 도약을 다짐했으며,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만든 신화가족 큰잔치 행사, 체육행사 및 산업안전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마음 전진대회를 마무리 했다. 김인수 대표는 "이번 전진대회를 미래 30년을 향해 재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아 도약을 위해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10월말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3,199	5,430
서울	4,211	3,462
부산	804	259
대구	721	157
인천	403	20
광주	326	133
대전	381	107
울산	255	74
경기	1558	279
강원	276	41
충북	351	112
충남	372	102
전북	360	71
전남	290	115
경북	551	84
경남	626	129
제주	199	98
세종	64	26
기타 <sup>주)</sup>	1,451	161
비고	-	대학 : 4,841 / 대학원 : 589

주) 위의 통계에서 건축사등록시 '근무처 없음'을 선택한 건축사는 기타로 분류됨에 따라 실제 등록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